



판문점선언을 지지
Pan Summit and Panmunjom De



남북강선

12

주제 107 (2018)
루게 제352호 월간

증산하고 절약하여 부강조국 빛내가세

보통속도로 흥이 나게

작사 최준경

작곡 송민화

C



1. 창 - 조 의 노래 - 높이 증 산 해 도 내 것 이 요



알 - 뜰 한 마음 - 안 고 절 약 해 도 내 것 일 세



조 국 의 재 부 속 에 나 의 것 도 들 어 있 어



증 산 하 고 - 절 약 하 여 - 우 리 살 림 늘 여 가 - 네

2. 혁신자 그 마음은 증산으로 빛이 나고
살림꾼 그 마음은 절약으로 꽃이 피네
조국의 번영속에 내 행복도 주렁지니
증산하고 절약하여 나라살림 늘여가네

3. 증산의 불길속에 넘쳐나는 우리 재부
절약의 그 손길에 더욱 높이 쌓여지네
우리 당 높은 뜻을 가슴마다 새겨안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부강조국 빛내가세



조국통일을 앞당겨올 의지를 안고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통일 행진을 하고있다.

동포들의 얼굴마다에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의지가 어리어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차 례

- 경제건설에 총력을 -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시여 3

일 화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6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광면목표 7

증산들격운동에 총매진하여 8

대 담

앞채을 메고 달릴 때 9

인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10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린다 12



5

일 화

장군님과 아이들 14

반 향

《로숙한 정치가》 14

인민을 위한 하루였다 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7

군인들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사랑 19

새 조국건설의 날에 지펴주신 불씨 20

《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21

수 기

그 품이 있어 22

애국의 자취 23

정 24

장애자들을 위한 학교 26



25

분위기 좋아, 맛 좋아 찾는 식량	28
젊음을 바란다면 (생활향기) 화장품을	32
목표는 세계선수권	33

조국의 품에 안겨 고지혈증치료의 원위자	34
---	----

고향소식 산골군에서도 증산의 동음 높다	36
---	----

편지 우리의 작은 마음도 합쳐가겠습니다	38
---	----



41

인상기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고	39
각원에서 사는 인민	39

고국방문 금지로 가슴설레인 9월	40
백호도에 깃든 애국의 마음	42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1)	44

《우리 소해금연주가》	45
------------------------------	----

수기 통일은 가까이에	46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47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학 (2)	48

사화 《쇠도리꺼다!》	49
---------------------------------	----



52

민족의 향기 건강한 삶을 원하는분들에게	50
---	----

야화 의좋은 형제	51
조국의 천연기념물 (23)	52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3)	54
민족자주통일의 의지를 안으시고	55
깡패국가의 비렬한 망동	56

조선속담 (참을성)	33
상식 바지와 저고리의 유래	35
조선구들	52
약효능이 높은 음식물 몇가지	54
유모아 그 값이 그 값	51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시어

민족사적사변들로 가득찼던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달이 왔다.

온 한해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온 조국인민들은 지나온 나날들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고있다.

올해에 통이 큰 결단과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조치로 여러차례의 북남수뇌회담과 조중수뇌회담, 한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을 마련하시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에 미증유의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온다.

그이께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되는 4. 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여주신것은 민족적인 사변이었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건설대진군의 진두에 서시어 조국인민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보다 큰 결실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신년사에서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근본책,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시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인민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자랑스런 승리를 이룩하도록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었다.

지난 5월 조국에서 처음으로 가물막이를 하지 않고 해상기초를 박아 건설한 고암-담촌철길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날바다를 가로질러 아아하게 뻗어간 해상철길다리를 바라보시며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고암-담촌철길 주체 107(2018)년 5월 촬영





대규모나무모생산기지인 강원도양묘장의 일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 새형의 궤도전차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동서남북을 중횡무진하시며 경제건설대진군의 진두에서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과 문명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삼복철이라고 하여 레외로 되지 않았다.

온 세계가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동반하는 최악의 고온과 무더위로부터 자기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저저마다 강과 바다, 깊은 산골의 피서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땀비고있는 때에 그이께서만

은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부문에서 큰 몫을 맡아하는 공장, 기업소 등을 찾아 평안북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와 강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많은 단위들을 찾고찾으시였다.

원산시의 낮 최고기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그날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요란한 양묘장을 건설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탄복하게 된다고 하시며 자신의 옷이 온통 땀으로 젖어드는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수고부터 헤아려주시였고 뒤이어 원산영예군 인가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건설장 등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제사업과 건설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고온현상이 극한점에 달했던 날에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며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판듯 기분이 들른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고 하시며 심중에 차오른 걱정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복의 폭염속에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시어서는 물 절반, 고기 절반의 흐릿한 광경이 펼쳐진 양어못들앞에서 그토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랭동저장고에까지 몸소 들리시어 랭동된 메기들을 보시면서 마치 금피를 쌓아

놓은것만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한달 남짓한 사이에 두번이나 삼자연군꾸리기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삼자연군꾸리기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자연군을 만년대계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우리 나라의 경치 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문화 휴식터를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것은 당(조선로동당)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사업이며 자신께서 제일 하고싶었던 사업

삼자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삼천메기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제품저장고의 일부



◇ 일 화 ◇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원료 배합, 재단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고 현대적인 레이저재단기, 압괴재단기 등을 새로 설치하여 운동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리고 제품검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반복구부림시험기, 충격시험기, 축구화특성시험기 등 현대적인 검측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

여 설치해놓았다는데 우리 사람들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시어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생산에서 걸린 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류원신발공장의

제품들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생산한 그물천과 합성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의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증산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중의 하나였는데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신 그이이다.

어찌 이뿐이라.

금산포켓갈가공공장,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 묘향산의로기구공장...

뒤떨어진 공장, 조건이 불리한 단위들을 찾으시여 전형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을 벌리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앞서나가는 단위들을 찾으시여서는 더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도록 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신 그이의 령도에 의해 온 나라에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인민들을 불려일으키시였다.

공업, 농업, 수산업 등 어느 부문이나 할것없이 모든 부문에서는 그이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에 보폭을 맞추며 따라섰고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의 속도를 가속화해나갔다.

하루밤 자고나면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창조된 기적과

혁신의 소식 그리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소식들이 연해연방 전해졌다.

진정 그이의 현지지도는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이 땅에 알찬 열매만을 주렁지게 하는 기적과 비약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국을 찾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조국의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포스트》, 프랑스의 AFP통신 등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지지도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마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경제적부흥을 이룩해나가려는 조선지도부의 의지의 반영이다, 현 상태를 놓고볼 때 힘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조선의 결심은 매우 굳건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조국인민들이 그이께서 열어주신 번영의 활로 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날은 멀지 않았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목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오 그를 관철하기 위한 당면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것이다.

조국인민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화의 포성이 높이 울리고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려명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룩한 성과는 자랑할만 하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완수하자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조선로동당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대진군에서의 당면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증산돌격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은 련속적인 공격, 최대한의 증산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계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운동이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방대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한내에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이 다름아닌 증산돌격운동이다.

증산돌격운동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를 수행하기 위한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과시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총정의 운동이며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자력자강의 대진군운동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위력한 보검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다.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자면 경제활성화에서 판전적의의를 가지는 에네르기와 원료, 자재문제를 결정적으로 주체화하여야 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자력갱생, 과학기술에 있다.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의 앞장에 선 본보기단위들은 레외없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철저히 확립된 단위들이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준비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무궤도전차도안들도 창작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통합생산체제도 구축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것처럼 기뻐하시며 대단히 만족하다고, 백점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이렇게 이 공장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속에 태어났다.

이것은 자력갱생하려는 사람만이 과학기술에 운명을 걸수 있고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어야만 자력갱생할수 있다는 귀중하고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성과여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 있다.

바로 그렇게 될 때만이 조국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윤정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여

올해 조국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전인민적인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이 운동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가 확립되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20t산소전로공사가 완공되었다. 이밖에도 부령합금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원료소비량을 낮추고 전기를 절약하면서 질 좋은 합금철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 확립되고 물분사에 의한 결면열처리 기술, 미량합금강생산 기술을 비롯한 많은 선진기술들이 도입되어 금속공업의 주체화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고온공기연소식회전기열로에 대한 총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으로 인발강판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곳 기업소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여러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가열로의 설계와 새로운 내화재료의 개발, 3통로절환변, 전동조절변을 비롯한 핵심설비 등을 우리의 기술과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완성하였다.

그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부족되는 설비,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종전의 낡은 로체가 해체되고 가열로벽체쌓기와 현수벽돌걸기, 조종실꾸리기, 설비조립

등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그러한 속에 덩지가 큰 회전식가열로공사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여러차례의 부분별시운전을 진행하여 로운영의 정확한 기술지표들을 확정하였다.

결과 수입에 의존하던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대고조건설장들에 절실히 필요되는 질 좋은 인발강판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고무되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도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 신념을 간직한 기계공업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계설비생산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켰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규모기계제작기지의 로동계급은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과 황해남도물길2단계공사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여러 발전소건설장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과 각종 부속품, 협동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충성호트락포르공장의 로동계급은 맡겨진 《충성-122》호 트락포르생산계획을 빛나게 결속하였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금성트락포르공장의 로동계급은 5t급화물자동차와 80hp트락포르를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리었다.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파에 기초하여 설계된 새형의 CNC공작기계를 개발해내는데 이어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첨단기계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빠스수리공장에서도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각 도들에 일떠서는 강냉이가공공장, 미림색기와공장 등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많은 건설대상들이 힘있게 추진되거나 완공되었다.

화학공업부문과 경공업부문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체화되고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을 보다 완벽해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었다.

증산돌격운동의 나날 인민들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이야말로 나라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이고 주체조선의 절대불변의 진전방식이라는 것을 역척불변의 신념으로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지금 전인민적인 증산돌격운동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해 보다 통이 크게 진행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앞채를 메고 달릴 때

- 경공업성 국장 김병오와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안녕하세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경제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적성파들이 련이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인민들을 기쁘게 하고있습니다.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이 자못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예.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은 우리 일군들이 구태의연한 사업태도와 답답한 일본새를 털어버리고 대담한 작전과 박력있는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선도자, 기마수가 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조선로동당)이 늘 가르치는바와 같이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군중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이 승리적으로 결속되도록 하자면 매개 부문과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기자: 지금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투쟁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강서편직공장을 찾은적이 있었는데 그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이 공장에서 자체로 새롭게 만든 먼적외선건조기는 종전의 수입설비에 비해 전기는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건조능력이 높고 제작원가 또한 적은것으로 하

여 그 어느 단위에서나 만들어 리용할수 있는데 바로 이 건조기를 공장의 일군들이 종업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국장: 기자동무도 보았지만 그 공장에서 리용하던 이전의 건조설비는 전력소비가 큰것으로 하여 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곤 하였습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로동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기계설비도 함께 돌리면서 자체로 더 좋은 설비를 만들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얼마후 현장의 한 로동자가 전력소비가 큰 흡입원통건조기를 전혀 쓰지 않고 뜨개천을 건조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자 일군들은 기술혁신조를 뭉고 설비제작사업을 맡아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장의 일군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연계밑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고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이며 제작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마침내는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던것입니다.

기자: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곳은 강서편직공장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그렇습니다. 경공업부문만 보더라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함흥모양말공장, 각지 신발공장들에서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북돋아주면서 새 제품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있습니다.

자기 단위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해 피타게 사색하며 묘안을 찾아내는 왕성한 일욕심과 탐구심, 실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사업전반을 추켜세우는 용의주도성과 전개력,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일단 시작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성, 세계를 앞서나갈 목표밑에 끊임없이 새것을 지향해나가는 진취성과 창발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경공업부문만이 아닌 경제지도일군들모두가 지녀야 할 중요한 품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일군들처럼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고 고삐를 든든히 틀어쥐고 자기 단위의 전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는 기마수가 될 때 온 나라에 창조와 증산의 동음은 세차게 울려 퍼지게 될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주어 감사합니다.

* * *

인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강원도에 있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150여가지의 당과류들과 식료가공품들은 중앙의 식료공장제품들 못지않게 호평을 받고있으며 그 수요 또한 미처 보장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에 대해 공장의 림순희지배인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의 비결은 인민들의 평가와 수요를 그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일군들로부터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관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데 있다고 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분발해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이미 구축한 통합생산체계를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생산된다.

보다 높아나가기 위한 사업과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설비갱신을 부단히 추진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제품개발을 맡아 수행할수 있는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그 수준을 높아나가고있으며 종업원대중을 새 제품개발에로 적극 추동해가고있다.

공장의 기술과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노동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착상들이 빠른 기간에 실천에 도입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으며 공장에서는 이 사업에 앞장선 노동자들을 내세워 주어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적극 불

리일으키고있다.

하기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여러 봉사망들을 찾아 어떤 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평가가 좋고 또 수요도 높은가, 인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파로 삼고있다. 뿐만아니라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자신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아나가고있으며 그것을 새 제품개발에 적극 활용해가고있다.

최근에만도 작업반장들인 리옥선, 천정옥 등이 착상해낸 강냉이즉석국수와 영양파배기, 꿀대추단빵, 우유사탕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공장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인민들속에서는 호평을 받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열정이 깃든 사탕생산공정이 식품안전관리 체계인증을 받게 되었으며 《기름열매를 리용한 영양증제조방법》에는 특허증서가, 근 20종에 달하는 공장제품들에는 최우수제품증서가 수여되었다.



제품분석실에서

오늘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경제건설에 총력을 -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올린다

철도성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에서 대건설전투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르기 위한 증송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기관차대에서는 기관차의 실동대수를 늘이는 것과 함께 모든 승무원들이 제기되는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운전대대의 기관사, 조사들이 증송운동의 앞장에 서고있다.

그들은 견인팔길을 벗어나 운행하는 조건에서 해당 구간들의 철길상태를 환히 꿰들고 그에 맞는 운행조법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특히 《붉은기》 5372호와 6006호, 5371호 승무원들은 렬차가 머무르는 곳마다에서 자체점검을 간간히 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삼지연군꾸러기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필요한 물동수송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

고있다. 기관차 수리정비를 제때에 하는것이 곧 증송실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기관차대에서는 기관차수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전기작업반, 대수리작업반을 비롯한 수리중대의 모든 작업반에서는 기관차수리에 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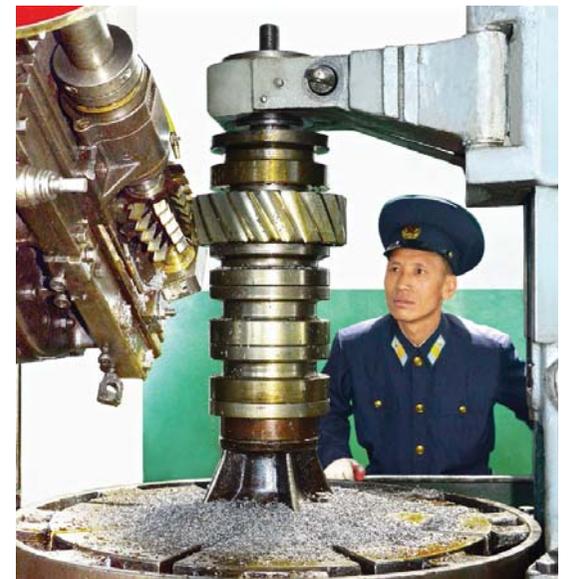


수리지구, 장비들을 더 많이 갖추며 부족되는 부속품들과 자재들을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풀어나가고있다.

하여 이전에는 전문공장들에서 생산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있던 각종 전동기와 베어링을 비롯한 부속품들을 100% 자체로 수리, 제작해내고있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지금 기관차대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기관차들이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장군님과 아이들

차를 멈추신 사연

어느해 10월초 이른아침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최전연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차가 어느 한 군소재지로 난 길을 통과하고있는데 9살쯤 되어보이는 한 소년이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다가 차소리를 듣고 문득 돌아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승용차를 향해 깎듯이 소년단敬礼를 하였다. 차창으로 그를 띄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승용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그리고 차문을 여시고 소년을 손저어 부르시였다. 한달음에 달려온 소년은 《아버지장군님!》하고 목메어 불렀다. 뜻밖에도 장군님을 만나뵈은 기쁨을 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를 정겨운 시선으로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년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학교에 간다고 씩씩하게 대답올리는 소년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럼 어서 승용차에 올라라, 내가 데려다주지라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허나 소년은 뒤로 한발 물러섰다. 어린 마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바쁘신 시간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소년의 기특한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아 차에까지 태워주

시였다. 어느덧 차는 소년이 다니는 학교가까이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인사를 올리는 소년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부를 잘하라고 거듭 당부하시고 그곳을 떠나시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신시찰의 길에는 후대들에 대한 이런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끊없이 새겨져있다.

잊지 않으신 들꽃소녀들

주체86(1997)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기특한 세 소녀에 대하여 상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알고계시는 그들로 말하면 한해전 위대한 김정일주석의 현지도도표식비앞에 들꽃다발을 드려 온 나라에 알려진 소녀들이였다. 그때 현지도도의 길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이곳에 누군가가 찾아와 표식비주변을 깨끗이 관리하였을뿐만아니라 소박한 세개의 들꽃다발을 정히 놓고갔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거듭되

는 자연재해로 하여 조국이 어려워져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 따르면 승리한다는 신심을 안고 억척같이 일떠신 인민들의 모습을 소박한 들꽃다발을 보시며 다시한번 뜨겁게 느껴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소행의 주인공들을 꼭 찾을데 대하여 해당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였다.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들꽃다발의 주인공들이 다름아닌 나 어린 세 소녀였다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이 세 소녀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 다시 세 소녀에 대하여 교시하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애들이 참으로 기특하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조선소년단창립절인 6.6절을 맞으며 야영소에도 보내주자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꽃다발의 주인공들을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신것은 바로 그 세 소녀의 모습에서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언제나 태양을 따르며 온 나라 강산에 만발하는 새 세대들의 화원을 보시였기때문이었다.

6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축포

주체55(1966)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맞으며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실 때였다.

행사를 크게 조직하지 않았다는 한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기념행사들은 크게 조직하지 않아도 소년단창립 20돐행사만은 크게 하자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주석의 교시를 정중히 전달해주시고 그 일군에게 행사계획을 다시 잘 세울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군은 다시 작성한 조선소년단창립 20돐과 관련한 행사계획안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앞에 섰다. 그 행사계획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다시 읽어보고 빠진것이 없겠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행사계획안을 또다시 돌려주시였다. 행사계획안을 받아든 일군은 한조향한조향 간간히 곱씹어가며 거듭 검토해보았다. 하지만 모든것이 다 반영되어있는듯 하여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와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요한것이 빠졌다고, 축포가 빠졌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축포는 큰 명절을 경축할 때 쏘아올리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에게 소년단원들의 명절에 축포를 쏘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몇달후인 6월 6일 밤 평양의 하늘가에는 조선소년단창립 20돐을 경축하는 축포의 불야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반 향

《로숙한 정치가》

뛰어난 통찰력과 로숙한 정치 실력을 지니시고 주동적인 조치들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칭송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에서 공화국과 관련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최근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외교활동으로 지역의 력학구도가 크게 변한 상태》, 《미국과의 수뇌회담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영상부각》 등의 내용의 기사가 실려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로씨야 하바루스크변강 인터넷신문 《제브리 데웨》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간주되던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

다. 올해 정초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범하고 주동적인 제의를 하시여 전세계를 놀래우시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였음을 세계에 보여주시였다. 그이와 미국대통령사이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상봉은 세계에 보다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시기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극적 사변들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취

하신 주동적이고 대범한 조치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비상한 결단과 과감한 협상력, 예리한 통찰력과 능란한 외교술로 현 정치정세와 대외관계를 능숙하게 주도해나가신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반도의 현 분위기는 김정은위원장의 자신감에 의해 이룩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잡지 《네이썬》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

선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대화의 원동력은 분명 그이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로숙한 정치가》,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이시라고 격찬하고있다.

* * *

인민을 위한 하루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쁜아니라 우리 공장 종업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가슴설레이군 한다.

그것은 우리 락량봉화피복공장이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에 찾으셨던 공장들중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주체100(2011)년 5월 6일 아침 공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여성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있다고 하기에 직접 료해해 보러 왔다고 하시며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전시품들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기호품이 많다고, 여성들이 나이에 따라 리용할수 있는 기호품이 종류별로 다 있는것 같다고 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일군들로부터 공장제품들에 대한 여성들의 반영도 들어주시며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기뻐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현장에서 옷설계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속옷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옷들을 설계하는것과 자동수예기들이 동작하는것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우리 여성들의 기호품문제를 풀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고,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호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피복제품을 원만히 생산공급하는것은 수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던 문제이고 자신께서도 지난 기간 이 문제를 풀데 대하여 여러차례 말하

였는데 일군들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여 결실을 보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가슴이 뜨거웠다.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여성들의 옷문제까지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한가득 차올랐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애써 마련한 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지금 공장에서 기호품을 빨간색으로 많이 만들고있는데 그렇게 진한 색깔로 만들면 얇은 겉옷을 입는 여름철에는 그것이 밖으로 내비쳐 좋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기호품을 여성들의 나이와 기호에 맞게 교상하면서도 부드러운 색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형식도 여러가지로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일깨워주시였다.

대다수 종업원들이 여성들인 우리 공장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래서 공장일군들이 앞으로 여성들의 속옷을 비롯한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겠다고 결의다지자 그이께서는 그 결의가 실천되리라고 믿는다고, 모두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는 따뜻한 당부를 남기시고 공장을 떠나시였다.



그런데 그 교시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당부로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후에 안 일이지만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공장을 나서신 걸음으로 봉화비누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으시였고 우리 공장에 오시기 전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나라일을 돌보셔야 하는 장군님에게 있어 가셔야 할 곳, 만나셔야 할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그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 바치신 그 하루들이 모이고모여 오늘 우리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이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인민소비품의 가시수를 계속 늘이고 원자재도 우리 나라의것으로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겠다.

락량봉화피복공장
지배인 리옥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전호에서 계속)

그후에 농우회가 농민동맹으로 개편되고 소년학우회가 소년탐험대로 개편되었으며 남만려자교육련합회 오가자지부가 부녀회로 개편되어 오가자대중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편후 각 조직들은 새 성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오가자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해당한 대중조직들에 망라되어 정치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촌공회도 혁명적인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오가자의 선각자들이 촌공회를 내온것은 1920년대 전반기였다. 촌공회는 경제교육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관헌들과 상시적인 련계를 맺고 산하에 공주령도자판매소와 같은 기관을 두어 농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고있었다.

오가자사람들은 촌공회일군들이 군중성이 없으며 청백하지 못하다고 로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나는 농민들과의 담화과정에 촌공회일군들이 공주령도자판매소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농민들에게 팔고루 배정해주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뒤로 빼돌리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공주령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도 돌아와서 촌공회가 썩었다고 하였다. 촌공회일군들이 농민들한테서 모은 돈을 람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있는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촌공회사업은 거의 촌장 혼자서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하고있었으므로 독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대중의 의사가 무시되었다. 대중이 참견하지 못하다보니 촌공회안에 무슨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게 되어있었다. 사람

도 생활도 일본새도 다 혁명적으로 개편되고있는 형편에서 종래의 조직기구와 고루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촌공회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사업할수 없었다.

우리는 촌공회간부들과 각 부락 튼장들, 농민동맹 위원장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열고 촌공회사업을 총화하였다. 그 협의회에서 촌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우리의 의도대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일을 잘해나갔다.

우리는 자치위원회산하에 있는 공주령도자판매소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였다. 오가자농민들이 쌀을 팔자면 마차나 소달구지를 끌고 100리밖에 있는 공주령에까지 가야 하였다. 쌀값이 떨어질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쌀을 보관해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것이 경제적이였다. 그런데 공주령에는 오가자의 농민들이 쌀을 팔길만 한 장소가 없었다. 보관장소가 없었기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망탕 쌀을 팔아버리곤 하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오가자의 농민들은 1927년 가을 공주령에 도자판매소를 설치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의 대중조직성원들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도자판매소에 파견하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가운데서는 계영춘, 박근원, 김원우와 같은 사람들이 판매소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주령에 파견되었다. 우리가 도자판매소를 장악한 후 이 판매소는 농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는 합법적상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혁명조직들과의 련계를 보장해주고 조선혁명군에 활동자료를 대주는 공개되지 않은 사명까지 감당하였다.

우리가 촌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공주령도자판매소와 같이 혁명을 돕는 합법적인 상업기관을 내온것은 1930년대초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오가자에 있을 때 만주의 여러 지역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조직들을 확대하고 활동판도를 넓혀나갔다. 그때 공작원들은 카이루(개로)지방에도 여러명 파견되었다. 《ㄷ.ㄷ》출신이고 화성의숙졸업생인 박근원도 그 일대에 가서 얼마동안 활동하였다.

카이루지방에는 몽골족이 많이 살았다.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카이루사람들은 병이 나도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신에게 빌기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약을 가지고가서 병난 사람들에게 주곤 하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후부터 카이루지방에서는 조선사람들이 가면 대우를 잘해주었다.

우리는 조직을 책임지고있는 사람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들과 핵심성원들을 망라하는 강습을 조직하였다.

나는 차광수, 계영춘동무들과 함께 매일 밤 두세시간씩 엿바꾸어가며 카룬회의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군중속에서의 정치사업방법, 조직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조직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방법과 그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우리는 강습이 끝난 후에도 조직책임자들을 데리고다니면서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는 방법, 핵심을 육성하는 방법, 분공을 주고 총화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담화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사업방법을 배워주었다.

오가자의 지휘성원들은 신심을 가지고 군중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가자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

가운데서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에 교원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게 하였다. 민족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설교하는 낡은 교과목들이 폐지되고 정치과목들이 새롭게 선정된것도 우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삼성학교에서 월사금이 폐지된 것도 이무렵이었다. 학교의 유지비는 자치위원회에서 대주었다. 취학년령에 해당하는 오가자의 모든 아이들이 그해 겨울부터 월사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후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것은 고유수, 카룬, 오가자에서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카룬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력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의 깊은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야학에도 힘을 넣었다.

나는 중심부락뿐아니라 주변부락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우리는 카룬에서 《볼셰비크》를 발간하던 경험을 살려 오가자에서도 《농우》라는 잡지를 만들어냈다. 《농우》는 농민동맹기관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셰비크》가 좀 리해하기 어렵게 씌어졌다면 《농우》에 실린 글들은 농민들이 보고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문체도 간결하고 평이하였다. 《농우》도 《볼셰비크》와 마찬가지로 간도에까지 배포되었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통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보급하였다. 《적기가》나 《혁명가》와 같은 노래도 학교에 가서 한번만 배워주면 그날로 온 마을에 퍼지곤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군인들을 위해 바치신 아버이사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을 위해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그 사랑은 자식들을 위하는 천만부모들의 마음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아버이사랑이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 아흔아홉굽이나 되는 험한 철령을 또다시 넘으려 하실 때의 일이다.

그날은 밖에 잠간 서있자고 해도 숨이 막히는 삼복철이여서 일군들은 그이께 철령을 넘으시는것만은 그만두시였으면 한다고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최전연병사들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꼭 가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며 앞장에서 그 길을 헤쳐가시었다.

그렇게 삼복철뿐아니라 칼바람몰아치는 겨울에도, 무더기비가 쏟아져내리는 장마철에도 철령을 넘고넘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찾으시는 초소들마다에서 군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여 병실바닥의 온도며 모포의 두께까지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문득 비누와 수건이 모자라지 않는가고 지휘관들에게 물으시었다.

애로되는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병사들이 포를 매일과 같이 소재하며 기름을 다루기때문에 비누와 수건이 모자랄것이라고, 소비량을 잘 타산하여 더 공급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언제인가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여 교양실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텔레비존을 시청하곤 하는 교양실의 온도가 침실보다 좀 낮다는것을 아시게 되었다. 한동안 안색을 흐리시던 그이께서는 이왕이면 더운 방에서 텔레비존을 시청하게 하면 우리 병사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텔레비존수상기를 침실로 옮겨놓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때 지휘관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껏 텔레비존수상기를 교양실에 놓고 시청하는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하

지만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범도 절대화하지 않으시였던것이다.

군인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아버이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군인사랑의 많고많은 사실들중에는 그이께서 27hp목선을 타시고 장재도방어대에 가시여 군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음 시찰하시겠다고 한 곳은 무도방어대(당시)였다. 그때 일군들은 무도가 위험하고 바다길도 사나운데다가 배도 작은 목선뿐이어서 그곳으로는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저저마다 말씀드리었다. 그러나 병사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앞길은 막을수가 없어 배는 목적지로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달리는 배우에서 무도방어대보다 더 위험한 장재도방어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내가 무도에 가면서도 장재도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곳 군인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배머리를 장재도방어대로 돌리라고 하시었다.

불과 얼마 안되는 섬초병들이 서운해할 심정까지 헤아려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주저없이 배머리를 돌려 먼저 장재도방어대로 가시는 그이의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의 세계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방어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섬초소군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그들을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최전연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이곳 군인들은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이 보내는 날과 달은 애국의 하루하루라고 값높이 평가하시면서 장재도방어대를 전군의 모범단위로 꾸리며 이것을 자신께서 말아하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날 오래동안 이곳 방어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지도해주신 그이께서는 이어 무도방어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떠나시었다.

그리고 그후 방어대가 불과 몇달만에 희한하게 전변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이곳에 찾아오시여 장재도가 천도개벽되었다고, 군인들이 얼마나 좋

새 조국건설의 날에 지펴주신 불씨

조국이 해방된 후인 주체 34(1945)년 12월 어느날 아침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녀투사들에게 오늘은 청진제철소(오늘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가서 공장형편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복구위원회 동무들을 만나 공장복구문제도 의논해보자고 하시었다.

한 녀투사가 제철소까지는 길이 멀기때문에 자동차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김정숙녀사께서는 눈덮인 산밭을 달리던 우리들이 벌써 자동차를 찾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앞장서 걸으시었다.

근 20리길을 걸어서 제철소에 이르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연기 한점 피어오르지 않는 공장구내를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생산으로 들끓어야 할 넓은 공장구내에서는 기계소리대신 뿜뿜 눈가루를 날리는 바람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다.

아직 공장이 돌아가게 하지 못한 자책감에 사로잡힌 복구위원회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소결로직장과 용광로직장을 돌아보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후심하게 파괴된 소결로와 용광로를 하루빨리 복구할 방도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논의하시었다.

이렇게 공장을 돌아보

시며 직장들을 료해하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여러대의 증기기관차가 서있는것을 보시었다.

그중 한대의 기관차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있었다.

기관차에서는 옷에 기계기름이 발리우고 얼굴에는 석탄재가 까맣게 묻은 스무살안팎의 두 청년이 성수가 나서 열성스레 일하고있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시어 한 청년에게 기관차를 움직일수 있는가, 기관차를 운전해본 일이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청년은 직접 운전해보지는 못했지만 운전하는것을 보기도 했고 몰래 시동도 해본 일이 있다고 말씀올리면서 자기가 겪어온 피눈물나는 지난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청년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숙녀사께서는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런 동무들이 바로 새 조국의 청년이며 주인들입니다. 이런 동무들이 있는 한 제철소 복구는 문제없습니다.》

감격을 금치 못해하는 청년을 바라보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어디 기관차안을 한번 보자고 하시며 그를 앞세우고 몸소 기관차에 오르시었다.

주인의 깨끗한 일솜씨를 말

해주는듯 알른알른한 부분품들과 계기들을 살펴보시던 김정숙녀사께서는 만족해하시며 한번 기적소리를 울려보라고 하시었다.

《붕- 붕-》

바람소리만 뿜뿜거리던 제철소 구내에 기적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이젠 기관차를 몰아보라고 하시었다.

사기충천한 청년은 시동변을 힘있게 돌렸다.

순간 기관차는 《칙칙》하는 소리와 함께 흰 증기를 세차게 내뿜으며 서서히 움직이였다.

제철소구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달려오며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었다.

기관차에서 내리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벌써 복구를 시작한셈입니다. 오늘 이 동무들이 울린 기적소리는 제철소복구가 시작되었다는것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날에 남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말씀은 새 조국건설에 펼쳐나신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 애국의 불씨가 되어 그들이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본사기자

아하겠는가고 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참으로 병사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들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조국의 군대는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하나의 신념으

로 철통같이 뭉쳐 그 어떤 최신에군사장비를 자랑하는 적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대오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은순

《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오늘 세계의 곳곳에서는 주체사상의 진수를 이루고있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봉하고 연구보급하기 위한 활동이 광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민주공공 자주를 위한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된데 이어 주체사상연구 내팔사회주의기자연단, 에스빠냐 바르셀로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었으며 그 수는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사무국장, 리사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은 물론하고 몽골과 일본의 사회계인사들까지 참가한 성대하고 의의깊은 회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의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은 보고회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이 시대의 요구와 인류의 념원에 부합되는 웅대한 결실이며 그 의의는 지난 40년력사를 통하여 확증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변함없이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로지 김일성-김정일주의만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길, 온 세계의 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보다 절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 연구보급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21차회의에서는 지난 기간의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지역별, 나라별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유럽에서의 자주위업》에 관한 북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었고 8월에는 네팔에서 《자주와 평화, 번영》에 관한 네팔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들마다에서 참가자들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자기 지역, 자기 나라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실천해감으로써 자주적인 유럽, 자주적인 네팔을 건설해갈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끝없이 신봉하고 빛내여가려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목소리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조국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보다 높이 울려나왔습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특출한 정치실력에 의하여 공화국의 위상이 남김없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대하여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로 불패의 위용을 떨쳐온 공화국의 자랑스런 70년력사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깊이있게 토론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체사상의 고향,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은 세계진보적인류의 자랑이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해갈 결의들을 다지였습니다.

제반 사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적범위에서 급속히 보급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음을 깊이 새겨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계진보적인류의 높아가는 지향과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보다 널리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원 원장 리성철

그 품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의 눈앞에는 길지 않은 인생의 잊지 못할 나날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따뜻한 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내가 8살, 9살나던 해에 불치의 병을 앓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부지인 나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졸지에 부모를 잃은 설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걱정이 어린 마음에 무겁게 자리잡아 나는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소학교와 중학교시기에는 선생님과 인정많은 이웃들, 정다운 동무들이 친부모, 친형제의 심정으로 나를 따뜻이 돌보아주었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정방공어머니들, 언니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내세워주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껴주는 집단의 사랑과 방조속에 나는 공장에 입직한지 1년만에 직장적인 사회주의 경쟁에서 3등을 하였습니다.

나는 더욱 분발하여 주체 97(2008)년에는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4월까지 공장적으로 제일 먼저 수행한데 이어 그해 말에는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끝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것처럼 기뻐하며 저저마다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축하해주던 모습이.

나는 그때 미처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울이는 그 사랑과 정이 바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내 조국의 따스한 손길임을 한해두해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고마운 사람들과 조국에 무엇인가 보답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말아보기 위한 합리적인 순회방법도 연구하였고 밤잠도 잊어가며 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 악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 나는 주체 98(2009)년부터 주체 103(2014)년까지 해마다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였겠습니까. 한것이 있다면 태어나서부터 알게모르게 받아안은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하였을뿐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내가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소중히 여겨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기쁨과 행복, 영광의 자리가 차례질 때마다 나의 눈앞에 제일 먼저 떠오른것은 어린시절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곁에 있어 나를 축복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날줄 몰랐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강물의 흐름에도 끝이 있고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건만 조국의 믿음과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주체 102(2013)년에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받아안은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뵙는 그 순간 나는 너무 행복에 겨워 눈물을 쏟고쏟았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으며 고아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을 나였습니다.

정녕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조국의 품이 아니교서야 내가 어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조국의 품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꽃피워준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오늘 나만이 아닌 우리 인민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그 품, 따뜻한 그 정을 안다면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라고.

사리원방직공장 정방공 오명춘

애국의 자취

아름드리거목을 떠받드는 뿌리처럼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어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조국인민들속에는 남포시 천리마구역 원정동 7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 평범한 로인도 있다.

20대홍안의 그 시절부터 년로보장을 받은 60대 중엽에 이르는 짧지 않은 세월 안창호로인이 마련한 단청도안자료집 《조선의 단청》(1, 2)과 《단청자료》(7, 1)에는 조국의 수많은 력사유적들의 단청자료가 480여점이나 들어있다.

단청은 력사가 매우 오래고 다양하며 그 수법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있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그가 이러한 단청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것은 주체68(1979)년이였다.

당시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문화보존연구소 연구사로 배치받은 그는 단청자료를 연구할데 대한 첫 과업을 받고 깊은 산속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절간에 찾아갔다.

이채로운 단청을 대하고보니 기쁘기 그지없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어떤 부분에는 단청이 탈색되어있었고 또 단청작업을 원상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하루빨리 전국각지의 옛 건축물들의 단청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공민적의무감을 자각하고 10년을 주기로 하여 단계별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첫 단계는 유적들의 단청자료들을 수집정리하

안창호로인이 수집한 단청자료들의 일부



안창호

여 우리 나라 단청무늬집을 만드는것이였고 두번째 단계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단청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우리 민족미술의 유구성과 다양성을 보다 새롭게 밝히는것이였다. 세번째 단계는 대상별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집한 기초우에서 단청자료들을 시기별, 대상별, 류형별로 분류하는것이였다.

그는 즉시 그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여 퍼그나 넓은 천정에 사도종이를 붙이는데만도 거의 하루가 걸리는데다가 그냥 올려다보기도 힘이 든 천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단청들을 원상그대로 하나하나 사도종이에 옮겨그리는 일이 어떤 때에는 한주일이상 걸릴 때도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해당 배수만큼 축소하여 심혈을 기울여 채색하였으며 채색이 끝나

정

《어머니, 학교에 갔다오겠습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봉남동 6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동옥녀성은 매일 아침 인사하며 학교로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면 이현실이 과연 꿈이 아닌가싶은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선천성소아마비였던 자기 아들 박진권이 부축임없이 혼자 걸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였던것이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수록 그의 눈앞에는 한 교육자의 모습이 우렷이 어려왔다.

그가 바로 평천구역 미래소학교 차성심교원이었다.

첫 개학날에

주체102(2013)년 3월 31일

차성심교원의 발걸음은 박진권 학생의 집으로 향하였다.

다음날이 개학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등교에 오지 않은 이 학생과 부모들을 만나보고싶어서였다.

그런데 진권의 집으로 들어서던 그는 깜짝 놀랐다. 선천성소아마비를 앓고있는 학생은 걸을수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했던것이다.

아연해하는 교원에게 그의 부모들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개학식날에는 먼저 교실에 가 앉아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나마 주저했던 성심교원은 이렇게 말했다.

《진권이 어머니, 개학날은 사람의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

으로 남는 뜻깊은 날인데 진권에게만 어떻게 공백으로 남아 있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성심교원은 진권의 어머니가 되어 그를 등에 업고 신입생들과 함께 배움의 꽃 때문에 들어섰다.

많은 교원들과 학부형들이 그들을 축하해주었다.

학생들을 이끌어

성심교원의 욕망으로 진권을 교실에 앉혀는 놓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된것은 아니었다.

진권은 온종일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았으며 학생들의 놀림이 두려워 위생실에 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현상을 목격한 성심교원은 학급학생들에게 우리 나

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꽃피어나는 미풍들에 대하여 자주 들려주었으며 육체적인 장애로 불편을 느끼는 진권학생을 잘 도와주고 사랑해줄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차츰 학급학생들속에서는 고운 마음들이 자라 진권학생을 도와주고 위해주었으며 서로마다 그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옥신각신하였다. 진권의 생일이면 그의 책상우에는 많은 기념품들과 축하장들이 수북이 쌓이곤 하였다.

성심교원이 3년나마 그를 업고 집과 학교로 오갈 때면 학급동무들도 따라나서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곤 하였다.

마음속그늘이란 있을수 없다

성심교원은 진권을 어머니의 따뜻한 정으로 돌보는것과 함께 그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과학적

으로, 계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나갔다.

기억력이 좋고 계산능력이 빠른 진권의 특성에 맞게 글을 쓸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수학문제를 속산으로 하는 습관을 붙여주었고 점차 숙련되는 과정에 여러자리수곱하기도 척척할수 있는 묘리도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 진권은 남들이 풀지 못하는 응용문제도 풀어 학생들을 놀래우곤 하였다.

이와 함께 발표력을 키워주기 위해 국어시간에 자주 읽기를 시켰으며 일기쓰기를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부모들과의 련계속에 진권이 고려의학연구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진권의 육체적발육과정이 촉진되도록 학교의 태권도소조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도록 해주었다.

박은경교장을 비롯한 학교일

군들과 구역안의 일군들도 진권의 학습과 치료, 육체발육을 위해 많은 방조를 주었다.

차성심교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걸을수 없던 진권학생은 5학년때 조선소년단창립절을 맞으며 진행된 운동회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동무들과 함께 태권도시범출연을 하였다.

그러는 진권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 김동옥녀성은 물론 교원들과 학부형들도 모두 눈시울을 적시였다.

지난 4월 초급중학교로 올라가는 진권에게 차성심교원은 이렇게 말했다.

《진권아, 너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따뜻한 정을 부어주는 고마운 제도를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라.》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면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현지로 가서 대조해보고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면서 도안을 완성하였다. 한개 대상에 대한 단청자료를 완성하는데만도 이처럼 많은 품이 드는 일을 그는 어느 한해도 중단없이 이어나갔다.

평양의 대동문과 보통문, 평원의 훈련정, 해주의 태봉각, 안변의 가학루, 정방산의 성불사, 안주의 백상루, 태천의 양화사...

그가 이렇게 고심하여 수집한 자료들가운데는 영영 잃어질뻔 했던 단청무늬들을 찾아낸것만도 적지 않다. 이렇듯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년세월을 단청과 함께 이어간 그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목표실현을 위하여 순간의 멈춤도 몰랐다.

지난해 1월과 3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학자들은 안창호로인이 30여년세월 마련한 단청도안자

료집 《조선의 단청》(1, 2)과 《단청자료》(1, 2)에 대한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참가자들은 저저마다 책들의 갈피갈피에 실려있는 풍부한 단청자료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앞서 내 나라, 내 민족의 재부를 빛내일 오직 한마음으로 수십년세월 변함없이 순결한 량심을 바쳐온 그의 고결한 애국적인 삶에 머리를 숙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30여년동안 나의 머리속에서는 늘 단청자료수집과 정리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듯 고결하고 애국적인 헌신성을 발휘하고서도 이렇게 소박한 말로 대답하는 평범한 공민들이 남긴 애국의 자취는 력사의 눈비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차성심교원(가운데)과 박진권학생(오른쪽에서 세번째)





장애자들을 위한 학교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2동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중앙위원회 기능공학교가 있다.

여러개의 교실과 실습장으로 꾸려진 학교에서는 10여명의 교원들이 룡인, 맹인을 비롯한 70여명의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을 주고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희망과 소질, 장애상에 따라 2년동안에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을 배우고있다. 학교에서 배우주고있는 과목은 컴퓨터, 목공, 식료가공, 피복, 수예, 리발, 미용 등이다.

학생들은 과정안에 따라 오전에는 대체로 리론강의를 받고 오후에는 체육 및 유희오락을 진행하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응용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실습교육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와 시내의 여러곳에 있는 실습현장들에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에 적용해보며 기술기능을 더욱련마해가고있다. 목공을 배우고있는 학생들

의 실습작품인 조선기와집, 강아지, 캥가루 등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들의 기능을 엿보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학교에서는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



지들에 대한 탐승과 참관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이 조국의 아름다움을 잘 알도록 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지지 않도록 하고있다.

미용을 배우고있는 청력장애자 김지예학생은 손말로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다양할뿐아니라 자기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편리하게 되어있어 정말 좋다고 하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동무가 많아져 좋다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배운 기술을 활용할수 있게 되어 좋다고 저마다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컴퓨터를 배우주고있는 한희웅교원은 학생들의 정열이 정말 대단하다고, 특히 1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리총해, 리혁학생들은 반년~1년정도 걸려야 할 과정안을 2~3달만에 완전히 터득하고 이제는 단순한 기계설계프로그램은 작성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2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지체장애자 채금정 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생의 희망

희망과 소질에 따라 여러가지 기술기능들을 배워간다.



리론강의를 받고있는 장애학생들

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두손이 없는 내가 컴퓨터를 다룬다면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정말이지 장애인 내가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장애학생들이 자기의 희망을 꽃피우고있는 모습은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분위기 좋아, 맛 좋아 찾는 식당

요즘 평양시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

《재료가 생신해서 그런지 모든 요리들이 하나같이 신선하고 맛이 있다.》

《앉은 자리에서 바다와 강에서 자라는 산물고기들을 선택해서 맛보게 되니 정말 좋다.》



우리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높아가는 인기에 끌려 이곳을 찾았다.

출렁이는 푸른 물결우에 두둥실 떠가는 유람선을 방불케 하는 식당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실내관상못에서 물속을 항행하는 잠수정을 편상하게 하는 200kg이 훨씬 넘는 철갑상어들을 사진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속에서 우리는 평양주재 중국 국제항공회사 항공역대표 류빈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이런 식당이 있는데 값이 너무 비싸 일반사람들은 식당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와 대화를 나눈 우리는 식당을 돌아보았다. 지하층과 지상 3층으로 된 식당의 1층에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육실거리는 실내못들과 여러개의 식사실들이 꾸려져있었다.

20여개에 달하는 실내못들에서는 철갑상어며 룡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자라들이 유유히 노니며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는듯싶었다.

제손으로 철갑상어, 칠색송어, 련어를 고르고 좋아서 어쩔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봉사원에게 해삼, 큰삽조개, 털게를 큰것으로 골라

달라고 청하는 처녀들도 있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한 산물고기를 가지고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주는 물고기즉석봉사홀도 사람들로 흥성이었다.

황금해식사실과 국수식사실에서는 룡정어탕, 칠색송어탕, 각종 회비빔국수, 철갑상어회국수, 련어회국수 등을 봉사하고있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우리도 황금해식사실에 들어섰다. 이 식사실에서 우리는 사동구역 송신3동 47인민반에서 온 표정순할머니의 가정을 만났다. 할머니는 집에서 룡정어탕을 먹어보았지만 이렇게 고유한 맛이 나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과 함께 음식문화도 더욱 향상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가족식사실, 민족요리식사실, 초밥식사실, 동양요리식사실을 비롯한 다양하고 특색있게 꾸려



진 식사실들과 수산물가공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 2층에서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수산물요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고있었다.

상점에는 없는것이 없는듯싶었다. 빼없는 바다물고기를 비롯하여 각종 물고기들과 이름난





이어 우리는 부페트식사실과 커피봉사실, 가족식사실 등이 꾸려져 있는 3층에도 올라가보았다.

식당의 그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즐기는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최현길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6월 우리 식당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물료리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깐지고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

양어사업소들과 수산물가공공장들에서 만든 각종 통줄임류들, 철갑상어훈제, 칠색송어훈제, 련어알젓, 밥조개가공살과 가공품들도 있었다.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인민봉사기지의 하나라는것을 명심하고 봉사사업을 더욱 짜고들겠습니다.》



글 봉사기자 김슬기
사진 봉사기자 김성철



젊음을 바란다면 *(봄향기)*화장품을

그가 누구든 여성이라면 건강과 젊음, 아름다움을 원할것입니다.

건강과 젊음, 아름다움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싶

습니다.

신비한 효과를 주는 《봄향기》화장품을 널리 사용해보십시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화장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이외에 로화방지제로 유명한 불로초배양액, 히알루론산을 비롯한 기능성물질들과 수십가지의 천연약재들의 유효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신진대

사를 활성화하여 로화를 방지하게 하고 미백, 주름개선, 보습 효과가 뛰어나 사람들로 하여금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도록 하여주고있으며 눈에 띄게 피부보호 및 기능강화작용도 나타냅니다.

특히 놀라운것은 피부의 맨겉층만이 아니라 제일 밑층까지도 활성화시키고 재생하여 젊은 피부세포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함으로써 누구나 젊음을 유지하고 되찾을수 있다는것입니다.

화장품의 로화방지효과는 유럽의 이름있는 화장품들을 누르고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로화방지화장품, 남자용화장품을 비롯하여 그 종류가 여러가지인 《봄향기》화장품,

《봄향기》는 당신들에게 영원한 젊음의 《봄향기》를 선사해줄것입니다.

글 및 사진 분사기자 김성철



목표는 세계선수권

주체107(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수정선수가 기계체조 여자자기재별결승경기 마루운동에서 1위를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였다.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계체조경기에서도 30여개 나라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이

활동훈련을 하고있다.



참가한것으로 하여 경기는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수정선수는 경기대회 첫시작부터 자신만만한 배짱과 담력을 가지고 평상시 런마한 기술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예선경기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실지 그는 결승경기에서 1분 30초동안에 수행하여야 할 8개의 난도동작들을 하

나의 실수도 없이 재치있게 수행하였으며 특히 뒤로몸펴공중에서 3회돌아앞공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마루운동에서 금메달 수상자로 되었다.

장중한 《애국가》가 울리는 속에 서서히 계양되는 공화국기를 보는 김수정선수의 눈가에는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기계체조를 시작한것은 7살때부



공훈체육인 김수정

터였다.

나라에서는 김수정선수에게서 기계체조선수로서의 남다른 재능을 찾아내고 그를 청소년체육학교에 보내여 그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기계체조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10살때부터는 평양체육단에서 유능한 감독의 지도밑에 전도유망한 선수로 자라났다.

하여 11살부터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으며 몇년후부터는 국제경기들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선수생활은 결

조선속담 (참을성)

-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고한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아무리 크게 노여움을 사는 경우에도 걸김에 일을 그르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뿔기로 고욤 하나 못 먹으랴

다소 힘들다고 해서 그만한 일이야 못하겠느냐는 뜻으로 이르는 말. 고욤: 감과 비슷하나 그보다 작고 길둥근 열매로서 맛이 꾀다.

- 대궐에서도 삼년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래 참고 굳세게 견디어내는것을 이르는 말.

대궐: 참대나무의 꺾.

- 고생끝에 락이 온다

무슨 일이나 간고분투하여 힘든 고비를 이겨내면 마침내 그 보람이 있어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고지혈증치료의 권위자



황해북도인민병원에는 고지혈증연구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한 로의학자가 있다.

그는 병원의 립상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허룡수선생이다.

우리가 어느 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한창 연구사업에 열중하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나 우리와 마주앉은 그는 건강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있는데 이제 마감단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의학은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학이 아닙니까.

단삼, 궁궁이, 도인(복숭아씨)과 같은 약재들에는 동맥경화증치료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재들로 차를 만들어 사람들이 복용하면 동맥경화성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뿐아니라 인체의 세포기능이 저하되거나 퇴화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속에도 동맥경화증과 같은 병적지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증세가 로출되지 않고있기때문에 병에 대해 등한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단삼, 궁궁이와 같은 약재들로 만든 차를 일상적으로 먹으면 병의 발생을 미리 막고 치료도 할수

코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훈련도중에 발목과 무릎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육체적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였다.

특히 난도가 높은 전회를 수행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도약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그를 더욱 괴롭혔다.

바로 이러한 그에게 김은주 감독은 《육체로만 체육을 하는것이 아니다.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동무는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주

었다.

감독의 말에서 그는 자기에 대한 집단의, 나아가서 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읽을수 있었다.

보다 높은 훈련계획을 세운 그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순발력을 높이기 위한 반발도약훈련과 음악과 동작의 일치성보장, 우아한 전회기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단한 반복훈련 등 그가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은 헤아릴수 없다.

이 과정에 그는 나타났던 부족점들을 퇴치하고 세부동작들도 하나하나 세련시켜나갔으며

이번 경기대회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것이다.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리는것이다. 그래서 나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지금도 김수정선수는 자기를 공훈체육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훈련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있다고 말하였다.

실지 그가 연구개발한 차들은 실험단계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었다.

고지혈증에 대한 그의 연구는 수십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어느해인가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다시마가 사람들의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신 교시를 받아안게 되었다. 그이의 교시에서 연구사업의 종자를 잡은 그는 다시마가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립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였다.

당시 고지혈증에 대한 연구는 보건부에서 미개척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보니 연구에 필요한 설비와 참고할만 한 문헌도 부족하였고 조언을 줄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고지혈증에 대한 연구는 혈액질병과 물질대사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였다.

사색과 탐구, 실험과 실패의 련속속에 마침내 그는 다시마가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및 립상적연구에서 성공하여 고지혈증치료의 개척자들중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는 연구를 심화시켜 우리 나라 일부 식료품과 고려약의 어떤 성분들이 고지혈증치료에 좋으며 그러한것들의 함량과 세기 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후에는 단삼

뇌혈전정맥주사약을 개발하여 고려약을 정맥주사할수 있는 돌파구도 열어놓았다. 그가 연구개발한 단삼뇌혈전정맥주사약은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확장과 뇌대사부활작용이 좋은것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고지혈증연구로 이어진 50여년, 그 나날 그는 30여명의 석사와 2명의 박사를 키워냈고 《동맥경화증》, 《실용고려약처방》, 《병태생리》, 《특발성기흉》을 비롯한 도서들과 교과서들을 집필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논문들을 발표하여 후대교육사업과 의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4개의 발명권도 받았다.

이 모든것이 그를 고지혈증연구와 치료에서 무시할수 없는 권위자로 되게 하였다.

연구사의 직분과 함께 보건성 동맥경화연구학회 책임자도 겸임하고있는 그에게로 지금 보건부문의 많은 단위들과 제약공장의 연구사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일본에서 홀몸으로 조국에 왔습니다. 그러한 나를 나라에서는 대학공부를 시켜 박사로까지 내세워주었습니다. 나의 연구사업에서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흔을 훨씬 넘긴 나이지만 고지혈증에 대한 그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변진혁

상 식

바지와 저고리의 유래

《바지》라는 말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나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남자들의 바지를 《가배》, 백제에서는 《곤》이라 하였고 신라에서는 《가반》이라 하였다.

남자바지는 고구려시기에는 활동에 편리한 통이 좁은것이였으나 점차 변천되어 고려말-조선봉건왕조 초기에 와서 통과 가랭이가 넓은 현재의 바지와 같은 형태로 되었다.

여자바지는 삼국시기에는 《고》라고 하여 겹옷으로 입었으며 형태는 남자바지와 비슷하나 통이 아주 넓었다.

옛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기에는 웃옷을 《위해》,

《단의》, 《삼》, 《유》라고 하였다.

삼국시기 이후의 기록들에서도 《위해》, 《단의》, 《삼》 등의 이름을 써오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록에 처음으로 《저고리》라는 표현이 쓰인것을 보면 이때부터 저고리라고 불리운것으로 보고있다.

저고리는 길, 소매, 실, 깃, 동정, 고름으로 되어 있다.

남자저고리는 깃, 실, 동정, 고름 등 구조상 여자저고리와 다름이 없었으나 길이가 길고 품이 넓은 점에서 구별되었다.

이처럼 바지와 저고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입던 독특한 민족의상의 하나이다.

* * *

산골군에서도 증산의 동음 높다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얼마전 황해북도 곡산군을 찾았다. 예로부터 골짜기와 산이 많은 곳이라고 하여 곡산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지구협회 고문인 정은화동포의 동생 정중득이 사는 곳이기도 하였다.

몇해전 정동포는 이곳을 찾아 동생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날 동포는 동생을 비롯한 혈육들에게 날로 변모되는 군의 모습과 비상이 높아지는 조국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비록 멀리 헤어져 살고있지만 마음과 뜻을 합쳐 애국사업에 보다 헌신해가자고 절절하게 말하였다고 한다.

정동포의 당부대로 지금 그의 동생과 혈육들은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나라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산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 고있었다. 동포의 조카들인 정근호와 정근성도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여러가지 소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있었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증산돌격운동에 펼쳐나선 인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군안의 여러곳에서 찾아 볼수 있었다.

우리가 먼저 들린 피복공장에서는 올해 8월에만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새 기술들을 도입하여 설비들을 갱신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가고있었다.

그러한 열의는 군농기계작업소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이동식다곡종소형탈곡기와 이동식벼종합탈곡기, 강냉이탈곡기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고있었는데 농기계들은 보기에도 좋았고 그 성능 또한 매우 높았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동식다곡종소형탈곡기는 벼, 강냉이, 밀, 보리 등 모든 낱알을 다 털어낼수 있는데다가 쓰

기에도 편리하고 생산성도 높은것으로 하여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한다.

성과는 군체신소에서도 이룩되고있었다. 특히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낸것은 규모도 작고 사람도 적은 이 체신소에서 발전소를 일떠세운것이였다. 발전소는 소형발전소였지만 생산되는 전기는 체신소에서 쓰고 남아 주민지구에도 보내주고있었다.

무슨 힘으로 이런 창조물을 일떠세울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흥형국 군체신소 소장은 자기들이 발전소를 세울수 있는것은 조건이 좋거나 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의 전기문제를 풀기 위해 그토록 애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정신이 종업원들의 심장마다에 맥박쳤기때문이며 바로 그것이 발전소를 세우는것과 같은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런 마음은 읍지구의 은덕원과 국수집, 미래원에서 만나본 사람들도 지니고있었다. 하기에 은덕원에서는 대부분이 녀성종업원들이고 건설경험도 없는 집단이였지만 9개월만에 원래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일떠세웠고 국수집과 미래원봉사자들 역시 자체의 힘으로 자기들의 일터를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조선식건물로 자기 고장의 특색이 살아나게 개건하고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식료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돌아볼수록 더욱 감동깊이 목격할수 있었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감동은 컸다. 하기에 우리는 확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성능높은 농기계들도 만든다.



곡산군피복공장에서

신하였다.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절대적으로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이런 불타는 정신을 지닌 인민들이 있어 증산의 동음은 산골군에서도 높이 울려퍼지고 그것으로 하여 곡산군의 래일은 더 아름답고 훌륭해질것이라는것을.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체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군의 체신일군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장봉해사촌누이 앞

우리의 작은 마음도 합쳐가겠습니다

누이,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매부와 조카들도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비롯한 조국에 있는 친척들모두가 건강하여 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주 누이칭찬을 하곤 합니다. 그 애가 참 용타고, 이국에서 살림을 꾸려나간다는것이 험치 않겠는데 그래도 조국을 위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고 애국사업에 헌신해가고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금수강산》편집국 기자들을 만난 이번 기회에 누이한테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였더니 얼마



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누이에게 앓지 말고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팔십고령이지만 정정합니다. 올해 설명절날에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여든번째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일상을 받는것을 굳이 만류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위하는 자식들의 마음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 자식들의 성의이니 받아달라고 계속 청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정 그렇다면 준비한것을 가지고 광물생산을 위해 애쓰는 성천광산 로동계급들을 찾아가자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요구대로 우리 형제들은 그날 광산에 찾아가 준비한 지원품들을 광부들에게 안겨

주면서 그들이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누이의 이야기를 또 꺼내놓으면서 너희들도 누이처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라고 하였습니다.

누이, 지금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누이도 알겠지만 지금 조국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광산기계공장에서든 광산들에 필요한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도 얼마전에 채굴용굴착기의 성능을 종전보다 훨씬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직장사람들과 광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구락아소소장사업을 하고있는 집사람도 일을 잘해가고있습니다. 요즘 집사람이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시대적요구에 맞게 락아소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락아소는 하루가 다르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어가고있습니다.

누이, 군대에 나가있는 자식들도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그곳 부대에서 여러차례나 감사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 가정이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저의 가슴속에는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전진하는 힘찬 대오속에 바로 우리 가정도 서있다는 긍지가 넘쳐남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의 가정은 앞으로도 조국을 위한 길에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갈것입니다.

누이,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다 쓸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은 건강에 류의하여 애국사업을 더 잘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평안남도 성천군 장림로동자구 79인민반 전영운

인상기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고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며 나는 학생이 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 자신도 다시한번 학생이 되어 여기서 공부하고싶은 생각이 절로 났던것이다.

교육용로보트를 통한 종합교육이며 가상교실에서의 학생들과의 대화, 산간마을, 섬분교의 학생들에게 좋은 복식교수를 비롯하여 대학의 교육설비며 교육내용들은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것들이었다.

특히 가상교실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학생들과서로 대화를 해보니 정말 놀랍기만 하였다. 아침밥을 먹었는가고 물어보면 가상환경에서 학생들은 밥이랑 반찬이랑 떡이랑 먹었다고 대답하였고 이름을 물어봐도 잘 대답하였다.

이것뿐이 아니었다.

어머니교실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수업중에 있는 학생들의 교실에 들어서니 증강현실기술을 도입한 현시기를 통하여 우주의 별도 가까이에서 보고있었다.

이런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교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자라나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흐뭇하고 절로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래서 나는 대학구내에 나와 배구를 하는 학생들속에서 날아온 뽀도 멋있게 받아넘겼다. 그랬더니 모두가 나를 보고 아직도 젊었다고 이야기했다.

정말이지 조국이 젊어지니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젊어지는듯싶었다.

이 젊어지는 조국을 위해 나는 더 힘껏 일해나갈 결심이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장 리순남

락원에서 사는 인민

나는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정말이지 꿈결에도 와보고싶었던 조국이였다.

그 간절한 소원을 60살이 가까와오는 지금에야 풀게 되었다.

조국은 그야말로 인민의 지상락원이였다.

락원이라는 말을 옛이야기나 소설책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현실속에서 직접 보았다면 아마 중국에 살고있는 우리 아들이나 친구들이 믿지 않을것이다.

내가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넌을 때 순간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여기가 바로 조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게 하였던것이다.

그래서인지 조국땅 그 어디를 밟아도 마치 고향 집뜨락을 걷는것만 같았으며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도 유정하게만 안겨왔다.

조국의 인민들은 남녀로소가 모두 활기에 넘쳐있었고 레질이 밝았으며 그들의 옷차림도 현대미가 나면서도 단정해보였다.

나는 그 사람들이 사업에서나 생활에서 너무

나 여유스럽다는데 대해 놀랐다.

그것은 그들이 교육, 보건 등을 통해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을 스스로없이 받고있었는데 그러한 모든것의 가치가 얼마만한 정도인지 모르고있다는데 있었다.

인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있는 조국인민들이야말로 락원에서 산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나는 조국에서 내가 본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며 금강산의 일만경치, 내가 만나본 친근한 조국인민들, 그 모든것을 사진도 찍고 록화도 하였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그들도 정말 기뻐할것이다.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치겠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정선희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았다.



즐거워 시간을 보내는 재중동포들

고국방문

금지로 가슴 설레인 9월

- 광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재중동포들 -

푸르른 하늘이 한껏 들리던 지난 9월, 광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평양에서 명절을 뜻깊게 보낸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마냥 설레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들의 재중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그리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등을 보며 저저마다 탄성을 울리고 걱정을 티드러였다.

《조국의 70년력사를 다시 한번 감동깊이 새겨보았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공지가 이 가슴에 차고넘친다.》

...

재중동포들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

지하고있는 평양메기공장과 모란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월향전시관, 개성고려인삼화장품 전시장 그리고 평양랭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에 참가한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은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라는 프랑카드를 들고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금지로 가슴 설레이는 이 뜻깊은 9월에 우리 재중동포들은 조국의 모습을 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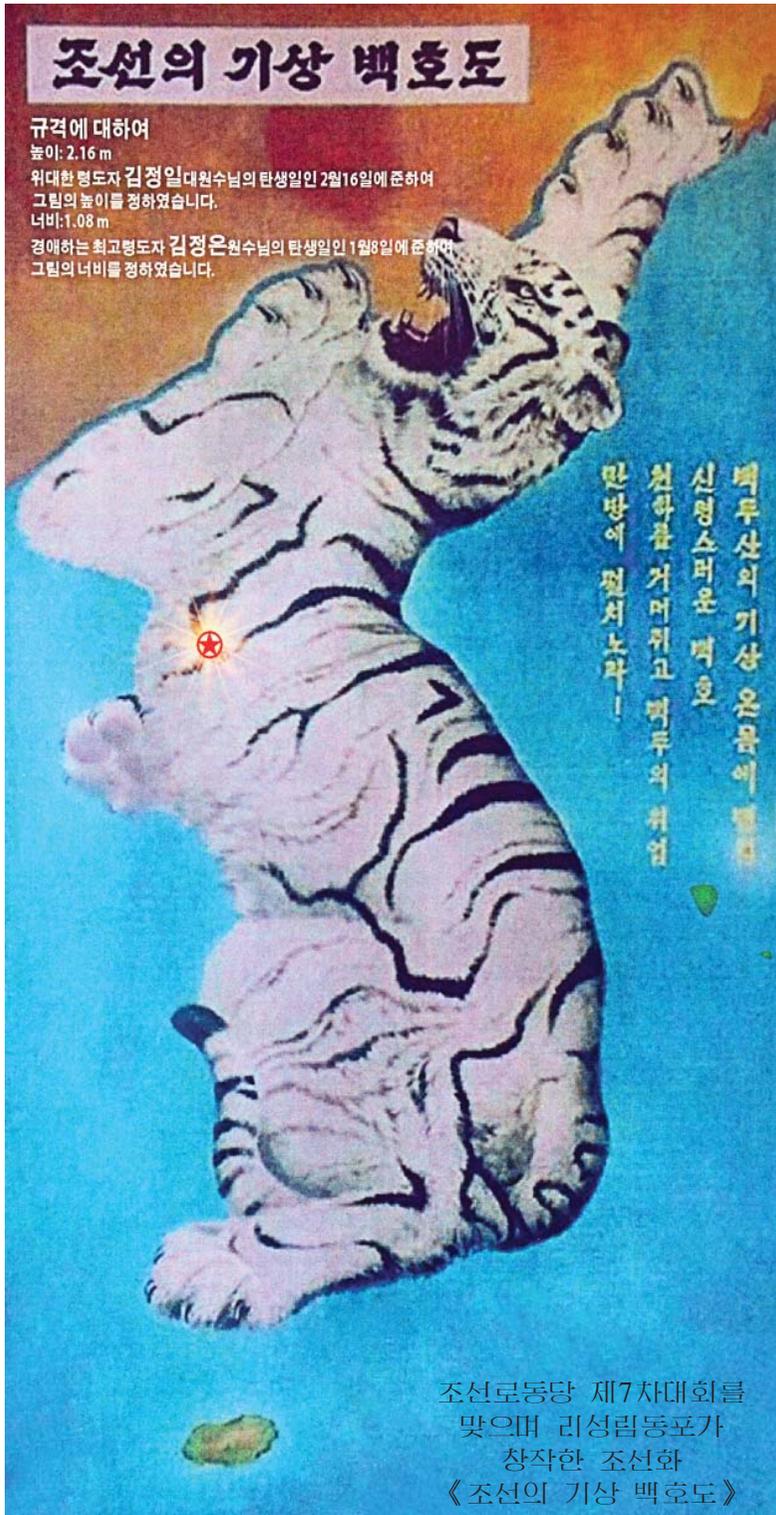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평양메기공장에서



백호도에 깃든 애국의 마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리성림동포가 창작한 조선화 《조선의 기상 백호도》



리성림

우리는 지금 한쪽의 그림을 마주하고있다.

조선반도우에 우뚝 올라서 앞발을 거세게 내뻗치며 《따옹-》 하는 위엄있고 용맹한 백호(흰범), 네다리는 북과 남에 뻗치고 달려드는 적수를 사정없이 쳐갈길 기세인 백호의 왼쪽 앞다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의미하여 7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보기만 해도 통쾌한 이 화폭은 중국 단동림풍무역유한공사 사장 리성림동포가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그린것이다.

그는 이미전에도 백호를 형상한 그림을 창작하였는데 그것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그린 조선화 《조선의 기상 백호도》이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고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선지도를 예로부터 사나운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위엄있어 백전백승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백호로 의미있게 형상한 그림은 현재 조국의 국가선물관에 전시되어있다.

그림에는 창작가의 체험세계가 깃든다고 하였다.

리성림동포는 중국 료녕성 어느 한 지역의 300여세대밖에 안되는 조선족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당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선족으로서 선조의 고향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차있었다.

어릴 때부터 세계지도에서 고국을 찾아보며 분열된 민족이라는 마음속아픔을 목새기지 못해 하던 그였다.

피는 숨길수 없는것인지 그의 마음은 항상 고국으로만 달리였다. 출판보도물들을 보아도 제일 먼저 고국소식을 찾았고 그 마음으로 하여 그가 조선과 가까운 단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매일 압록강변에서 고국땅을 바라보며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것은 그의 생활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 나날 그는 압록강너머 바라보이는 평안북도 사주군에 수종이 좋은 복숭아나무들로 규모가 큰 과수원을 조성할 마음을 안고 그곳에 온실, 삭주림풍합영묘목장 등을 세웠으며 수십종의 나무종자와 수많은 복숭아나무모도 보내여왔다.

뿐만아니라 고국의 보건부문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적지않은 지원사업을 하였다.

그는 짬만 있으면 단동에 오는 고국인민들을 만나 고국에 대해서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였

다. 그것은 일제의 군사적강점 밑에서 신음하는 조선민족을 구원해주시고 고국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였고 적대세력의 후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총대를 앞세워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였다. 그리고 매일 고국의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그분들과 똑같은신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인민의 요람을 지켜 낮에 밤을 이어 조국의 곳곳을 쉬임없이 찾으신다는것과 날에 날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고국의 현실도 알게 되었다. ...

고국의 모든것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고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고국의 위상을 그려보며 그는 일제가 토끼모양으로 만들어놓았던 조선지도를 백호로 그려낼 대담한 결심을 하고 붓을 들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된것이 조선화 《조선의 기상 백호도》였다.

하고싶어 하는 일은 힘든줄 모른다고 그의 붓은 멈출줄을 몰랐다.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 조예가 깊은 그는 고국의 현실을 담아 노래 《백호의 기상 조선》을 작사하였으며 《내 조국 찬가》, 《백두령장 찬가》를 비롯한 여러편의 시들도 창작하였다.

그리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중국 관전의 혁명사적지, 전적지들을 찾아 자기의 지성을 바쳤으며 고국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고구려유물도 많이 수집하였다.

이러한 파정에 그는 단동에 《조선백호자랑》편집부를 내고 출판물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편집발행하는 화보들에 발전하는 고국의 현실을 여러모로 펼쳐보이였다.

그는 조선화 《조선의 기상 백호도》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올린데 이어 지난 2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권의 《조선백호자랑》화보와 함께 그것을 수록한 기억기를 그에게 삼가 올리였다.

지금 그는 고국을 더 잘 알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박사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고있다.

애국으로 들끓는 그의 마음은 오늘도 래일도 식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리성림동포가 창작한 백호를 형상한 조선화(왼쪽)와 《조선백호자랑》화보들의 일부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1)

지구촌을 진동하는 대사변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 처음 보는 국제력학구도의 대전환을 예고한 세계정치기류의 급격한 변화가 형성되고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중심에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계신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바이다.

세계정치무대를 뒤흔든 두차례의 북남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조미정상회담, 3개월안팎의 짧은 기간에 세번이나 단행된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중국방문, 그 세기적사변들을 통해 파시된 그분의 비범출중한 활약과 파격적행보들은 하나하나가 세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판문점상봉때 《평화의 집》방명록에 남기신 필체도 내외에 큰 파문과 충격, 여운을 남기였다.

한 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위인적초상을 그 유명한 필체에서 강렬하게 받아안은것은 결코 나만의 심정이 아닐것이다.

비범한 위인상이 빛발치는 명필체

필체는 지성과 인격의 반영이며 필체를 보면 그 인간을 알수 있다고 한다.

역사적인 4. 27판문점상봉때 온 겨레와 전세계의 감탄과 찬사를 자아낸 명화록의 하나가 바로 방명록에 남기신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필체였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 4. 27》

거침없이 단숨에 써내려가신 최고령도자님의 필체는 말그대로 일필휘지의 극치였다.

세인들은 그분의 경이로운 필체와 필법을 접하며 크나큰 충격에 휩싸여 파시 출중한 위인이 다르시다고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굉장히 호방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을 보여준다.》, 《락천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두뇌회전이 매우 빠르

다.》...

그 경탄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비범출중함에 대한 솔직하고 꾸밈없는 찬사였다고 생각한다.

새겨볼수록 국무위원장님의 필체는 백두산의 웅자와 같이 거창하고 시원시원하며 마치 살아움직이는듯 황홀하고 기세차다.

큼직큼직하면서도 오른쪽방향으로 힘차게 뻗어나간 필체의 약동성과 장중함에서는 국제정치의 거장으로서의 우주적안목과 담대한 기상, 젊음과 락관의 기상이 맥박친다.

불꽃튀기듯 빠르고 거침없이 날아오르듯 단숨에 내달린 필체의 강한 운동감과 속도감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없이 일단 결심한 목표를 향해 파감히 돌진하는 강의성과 원칙성, 내밀성의 투영이다.

안정미와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전체적구도에서는 그 누구든 너그러이 품어안아 정과 마음을 주는 따뜻한 인정미와 친근감이 흘러넘친다.

세인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세기적상봉들에서 스스로없이 상대와 악수도 하시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신 감동적인 모습, 격식과 틀을 깨시고 오랜 친구처럼 산책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신 여유로운 행보, 중대한 합의문건들에 거침없이 수표하시고 환한 미소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신 경이로운 화폭들에는 그분의 비범한 필체의 기상이 그대로 맥박쳐 만사람을 숙연케 하였다.

돌이켜보면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안목과 평활무쌍한 지도력으로 몇달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세기적전변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출선 주도해오시였다.

저물어가는 지난해의 언덕에서 복잡다단한 정세의 본질과 대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의 새로운 출발의 단행을 선언하시였으며 당당한 공화국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새 세계를 창조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시였다.

재카나다동포 고진호 (2018년 7월)

《우리 소해금연주가》

이역땅에서도 공화국의 해외 공민된 긍지를 안고 민족의 춤과 노래, 음악을 떠들썩하게 펼쳐가는 재일동포들의 밝은 모습을 떠올릴 때면 금강산가극단의 소해금연주가의 해맑은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이름은 량성희,

우리가 공훈배우이며 2. 16예술통상수상자인 그를 처음 만난것은 지난 2월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였다.

량성희동포는 대학에서 공화국의 가장 우수한 소해금독주가이며 수많은 독주곡들을 창작하여 나라의 민족기악발전에 큰 기여를 한 신륵선생님께서 강의 를 받고있었다.

우리와 마주앉은 동포는 해금통처럼 동실한 얼굴에 수집은 미소를 지으며 16살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조국에서 수십일씩 개별강의를 받으며 소해금연주 기량을 부단히 높여왔다고 하면서 흘러간 옛시절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일본의 오키야마현에서 태어난 량성희 동포는 초급부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해금과 류다른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인물과 몸매가 고운 그가 처음 배운것은 무용이었다. 그런데 그는 초급부시기에 맑고 아름다운 음색이 흘러나오는 금강산가극단의 소해금독주곡을 들은 후부터는 소해금에 마음이 끌리였다.

그러던 어느해 뜻밖에도 조국에서는 그의 학교에도 재일 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수많은 민족악기들을 보내어

왔다.

이미전에 본적이 있는 소해금을 안고 이리 쏘고 저리 쏘어보던 그는 악기의 줄에 활을 한 번 그어보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어 그걸을 좀처럼 뜨지 못하였다. 그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 학교의 선생님들은 량성희 학생을 해금소조 소조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많은 시간을 소해금기량훈련에 바치였다. 하루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해금부터 찾아쥐였고 집으로 돌아가면 밤깊도록 창가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되새기며 열심히 훈련하였다.

그러한 그를 조국에서는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 연주 기량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여 주였다.

조국의 고마움을 폐부로 느끼며 그는 조선민족의 긍지를 민족적특색이 살아나는 소해금에 담아 더욱 훌륭히 형상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

그후 량성희동포는 금강산가극단 연주가로 자라나 재일동포들의 애국활동을 적극 추동하며 공훈배우로 성장하였다.

량성희동포가 사랑하는 소해금독주곡들가운데는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나오는 《울지 말아 을남아》를 비롯하여 《꽃노래》, 《내 사랑하는 꽃》, 《종다리》, 《회양닐리리》 등 많은 곡들이 있다.

그 모든 곡들을 그는 곡상의 요구대로 또 독특한 주법을 살리면서 훌륭히 연주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곤 하였다.



량성희

량성희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소해금을 연주할 때마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이 제일이라는것을 온 일본 땅, 아니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한다는 가슴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이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 어머니 조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에 그는 지난해 6월 일본 도쿄에서 소해금독주회를 열고 동포사회에서 일고있는 해금 바람에 송풍기적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그를 동포들은 《우리 소해금연주가》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있다.

량성희동포는 금강산가극단에서 지방순회공연을 진행하는 날 휴식도 마다하고 지역의 조선 학교들에 나가 학생들에게 소해금연주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지금 그는 민족악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동포들의 마음을 안고 이역땅에서 자기의 연주기량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본사기자 연옥

통일은 가까이



처음 평양을 방문하던것이 었 그제같은데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100차를 기록하는 나의 평양방문회수와 함께 시집 《다리를 놓자》를 비롯한 많은 시집들도 출판되었다.

지금도 그때 창작된 시들을 볼 때면 가슴이 뚫듯하다.

내가 창작한 모든 시들이 다 통일주제의 작품들이기때문이다.

통일은 조선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다.

나는 이것을 고국방문과정에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한번은 고국을 방문해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본적이 있는데 그때 《통일아리랑》장을 매우 감동깊게 보았다.

이 세상 이 하늘아래 갈라진 민족, 갈라진 아리랑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가슴에 세차게도 파고들었던것이다.

공연을 보느라니 나의 가슴은 뜨거워만졌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민족에게 통일된 조선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로고를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서명하신 문건이 조국통일과 관련된 문건이라는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일것이다.

하기에 그분의 뒤를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분렬의 한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주석님의 조국통일친필비를 정히 모시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긴장이 한껏 서려있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을 몸소 찾으시여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실결연한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그 확고한 의지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발표라는 크나큰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때 감흥이 커서 나는 여러편의 통일주제의 시들을 창작하여 《통일문학》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가로막아나섰으며 고국에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만이 아니라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겨레 모두가 슬픔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위대한분들과 사상도 인격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슬픔의 바다에서 인민을 안아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들의 넉넉

을 현실로 꽃피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겨레의 통일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해마다 신년사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그이의 령도아래 고국에서는 눈부신 현실들이 펼쳐져 통일은 멀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로 성큼성큼 다가오고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나는 재중동포작가통일문학회 준비위원회를 무을 결심을 하고 중국에 널려져있는 우리 동포작가들에게 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에서 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민족의 단합을 촉진시키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통일문학회를 내오자고 이야기해주었더니 박초란, 리정화, 허만석, 한태익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지지를 표시하며 평양방문길에 오르자고 서로마다 제기하였다. 그들은 고국방문의 나날 많은 소설, 시들을 창작하였다. 리정화선생은 고국에 와서 《통일신보》에 발표된 자기의 시 《이밤도 달은 등글건만...》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나는 앞으로 우리 문학회성원들이 민족을 통일로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적극 이끌어주며 나 자신부터가 이 사업에 적극 앞장설 결심이다.

중국 단둥시 원보구 흥용암

한해의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희망으로 가슴부풀던 주체107(2018)년의 새해가 었그제같은데 벌써 이해의 마지막달이 왔습니다.

12월의 달력을 펼쳐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사변도 많고 충격도 많은 올해에 조국과 마음도 숨결도 같이하며 통일애국에 한몸바치던 동포여러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올해에 들어와 세차레에 걸쳐 진행된 북과 남 최고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소식에 접하고 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웨치던 여러분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해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올해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 안고 공화국창건 70돛이 되는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자기들의 결의를 인터넷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을 안고산다며 통일애국사업에 헌신하면서 조국방문의 길에도 자주 올랐습니다.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일, 재중, 재로 등의 동포조직과 동포들은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과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피운 불멸의 꽃들을 전시하였으며 태양절에 진행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때에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휴식시

간도 미루어가며 훈련을 거듭하던 재중조선인예술단의 최경호, 리상길, 리홍관, 한선녀, 박춘희, 김순희배우들과 김용, 김경자부부,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에술단 성악가 남별동포의 모습이 방불히 안겨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따뜻한 봄날 고국을 방문하여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면 민족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겠다던 중국과 로씨야에서 왔던 동포들의 모습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돛을 맞으며 동포여러분은 통일애국사업에서 자랑찬 보폭을 내짚었습니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고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조국으로 전면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그분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인민의 행복한 오늘이 있는것입니다.

하기에 공화국창건 70돛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던 많은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70년력사를 돌이켜볼수록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더더욱 강렬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우기 조국의 국력과 군력,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보여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돛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

위 그리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청년전위들의 화불야회를 보면서 강위력한 조국을 가진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에 넘쳐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격동된 심정을 참지 못하던 동포들이였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김영옥동포와 캐나다에서 사는 윤성원동포, 로씨야의 나호드카에서 사는 리가이 따찌야나, 리 빨리나를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 어느나라, 그 어느 민족도 흉내낼수 없는 일심단결된 조국의 기상을 시위한 행사들이였다고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였습니다.

라선룡호산해개발회사 사장 최현룡동포를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공화국창건 70돛을 맞으며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선물들을 안고 고국을 찾았습니다.

이뿐아니라 일본, 중국, 로씨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동포조직들과 동포들도 다양한 행사들로 공화국창건 70돛을 뜻깊게 경축하였습니다.

정말 추억깊이 돌이켜지는 한해의 취재수첩을 우리는 쉬이 덮을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지면에 조국과 통일을 위해 바쳐가는 여러분의 애국의 마음을 다 적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우리는 글을 끝내립니다.

그럼 주체108(2019)년의 새해에도 동포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동포사업과 통일애국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학 (2)

《쇠도리깨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문학은 17세기 후반기부터 조선봉건왕조가 자기의 존재를 마친 1910년까지를 포괄한다.

이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반봉건적진출과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발전으로 하여 사회문화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이다. 따라서 문학은 급격히 변천되어가는 사회력사적 및 문화적환경을 배경으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봉건사회의 모순이 극도로 표면화되고 량반지배계급의 신분적지위가 점차 와해되어가는 사회적현실을 반영하면서 사실주의문학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민문학분야에서는 농민폭동을 노래한 《란이 났네》와 같은 사회정치민요들이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설화 《마십굴》, 《사랑산과 절부암》, 민간극 《봉산탈춤》, 《오광대극》, 《꼭두각시극》 등이 창작되었다.

소설분야에서는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구운몽》, 허균의 《홍길동전》 등 장편형식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에 들어와 구전설화를 토대로 한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과 같이 조선중세문학의 력작들인 국문소설들이 활발히 창작되었다. 또한 《옥루몽》을 비롯한 장회체형식의 대장편소설들도 출현하였다.

시문학분야에서는 서민출신의 시인들이 문단에 적극 진출하여 일정한 류파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신분적지지를 반영한 작품들을 경향적으로 창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선진사조로서 실학이 발생하여 정치, 문화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이 사조는 문학분야에서도 일가를 이루어 하나의 사조적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박지원, 정약용을 들 수 있다.

박지원은 소설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그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 《량반전》과 《허생전》을 들 수 있다. 《량반전》은 무위도식하는 량반들의 무능력과 몰락과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이고 《허생전》은 주인공 허생의 형상

을 통하여 상업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마지막에 주인공 허생의 도움으로 농민폭동군이 무인도에 가서 착취없는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내용을 통하여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농민들의 행복에 대한 념원을 반영한 작품이다.

정약용은 주로 시문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의 시작품들은 봉건말기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수법으로 예리하게 폭로비판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사실주의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굶주린 백성의 노래》, 《적성촌의 오막살이》, 《송충이》 등을 들 수 있다.

18세기 이후부터 우리 문학에서는 점차 근대적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문학의 근대적경향은 우선 그 주제사상적내용과 성격형상에서 봉건적신분제도가 와해되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던 사회적현실을 반영하면서 근대적인 지향을 표현한데서 나타났다.

소설 《량반전》, 《배비장전》은 량반계급의 신분적지위가 허물어져가던 당대의 사회관계를 반영한 작품이고 《허생전》은 근대적인 상업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봉건말기의 어지러운 사회적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사회개혁적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다. 또한 소설 《춘향전》, 《채봉감별곡》 등에서는 봉건적신분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성취하려는 개성해방의 지향을 일정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문학의 근대적경향은 또한 작품의 구성과 형상수법에서 중세기적인 환상과 고생끝에 락이 오는 식의 구성수법이 점차 없어지고 구성과 형상수법에서 보다 현실적인 계기와 묘사수법에 의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있는것과 문체에서 언문일치의 경향이 훨씬 강화된데서도 나타났다.

이 시기 문학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근대적경향은 이후시기 조선근대문학이 자기의 민족적전통에 토대하여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는 직접적 토대로 되었다.

(끝)

사회과학원 실장 교수 박사 박길남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 봉산의병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밤중 풍덕몰의 왜군무리를 냅다치고나서 한골로 돌아오는 길에 봉산의병대원들은 자기들이 가진 창, 칼과 같은 병쟁기들의 부족점을 놓고 불만을 터쳤다.

《우리 봉산의병대의 장기인 야간기습이라는게 놈들과 엉켜 돌아가는 싸움인데 이런 판에서야 그저 막 휘둘러치는 병쟁기가 제격이겠는데...》

...

동틀무렵, 봉산의병대의 기지이자 자기들의 집이 있는 한골에 도착한 그들은 김만수의병장에게 전투 결과를 보고한 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갔다. 어느 집에서나 밀마당질이 그들을 부르르고있었던것이다.

의병들은 필요에 따라 훈련도 하고 전투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농사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농사군들이었다.

집에 이르자마자 현노술은 아침을 대충 치른 뒤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다. 늙은 부모들과 안해 무던이가 밀단을 풀어 마당에 널어놓는 사이 그는 도리깨장부끝에 뿔린 구멍에 꼭지를 가로 꿸고 물푸레나무 두가지를 꼭지의 량쪽에 하나씩 노근노근한 첩으로 단단히 비끼려맸다. 그리고는 풀어 헤친 밀짚을 향해 도리깨를 휘둘렀다.

밤이 되자 의병기지 한골은 고요에 잠겼다.

모두가 굳잠에 든 한밤중에 이곳으로 한무리의 왜적들이 농군들의 집집에 쌓인 밀단에 불

을 놓으려고 은밀히 덤벼들었다. 적들을 제때에 발견한 파수들이 북을 울리자 집집에서 농군의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뛰쳐나왔다.

의병들이 적들을 물리친 후 노술은 가족들과 밀날가리에 무슨 일이 생겼을것만 같아 급히 집으로 내달렸다.

집마당가에 다달아보니 밀날가리둘레에 몇개의 해가 떠오르고있었는데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안해 무던이의 모습이 보이고 밀날가리도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왜적 하나가 밀짚에 머리를 처박고 엎어져있었다. 그곁에는 꼭지가 부러진 도리깨가 있었다.

《도리깨가 왜적을 잡을줄이야. 허참, 아무튼 현로인이 담두 크지!》

마을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노술은 마음속격동을 금치 못했다.

환갑을 넘긴 늙은이일뿐 아니라 왜적은커녕 다른 사람들과 다름질 한번 해보지 못한 순박한 농사군일따름인 자기 아버지가 난알이나 털어내는 농쟁기인 도리깨로 집에 달려든 왜적을 때려눕혔던것이다.

그날밤 노술은 잠이 오지 않았다.

도리깨를 틀어잡고 적들에게 달려드는 아버지의 성난 범같은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들고 《도리깨루라두 왜적을 맞받아 치니 가족이 살아나구 밀이 구원됐구만!》, 《도리깨에 힘이 있다. 힘!》라고 하던 이웃들의 경탄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휘둘러치는 병쟁기가 꼭 필요하다. 아버님이 도리깨를 휘둘러 적을 잡은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군들이 지금 쓰는 도리깨를 그대로 싸움마당에서 병쟁기로 쓸수야 없지 않는가. 아버지의 도리깨는 원수 한놈을 잡고는 부러져나갔다. 병쟁기는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 하지만 어쨌든 적을 잡은 엄연한 사실은 그것을 든든하게 고쳐만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병쟁기가 될수 있다는 단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끈덕지게 떠날줄 모르며 졸음을 쫓아버리었다.

궁리를 거듭할수록 신심이 생겨났다.

도리깨를 병쟁기로 만들수 있다는 노술의 제의는 많은 의병들의 지지를 받았다.

의병들은 대장간에서 낮에 밤을 이어 쇠도리깨를 만들었다.

노술이네가 만든 쇠도리깨는 싸움을 치르는 과정에 점차 그 결함들이 시정되어갔다.

그후 왜적무리속에서 《쇠도리깨다!》하는 비명소리가 터지기만 하면 적들은 갈팡질팡헤뎌며치며 출행량을 놓곤 하였다.

의병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릴 때마다 김만수의병장은 이런 탄복을 터뜨리곤 하였다.

《이렇듯 훌륭한 병쟁기를 제손으로 만들어 나라구원에 크게 이바지한 우리 봉산땅의 주인들, 의병들이야말로 장할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국충신이야!》

* * *

건강한 삶을 원하는분들에게

동포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 안있어 인생의 한돌기년륜을 또다시 새기게 됩니다. 한살, 두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한 삶에 대한 욕망은 누구라 없이 클것입니다.

건강을 담보한다고 할가, 아니면 지켜준다고 할가. ... 적중한 말마디들을 고심하여 고르고 골라보아도 글귀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명백한것은 건강한 삶을 원하는분들이라면 누구나 떡운콩을 잡수실것을 권고하고싶은 마음이 간절해 저는 이렇게 붓을 들었습니다.

콩은 수천년전부터 우리 민족이 식생활에 리용하여온 건강식품원료입니다.

콩으로 만든 여러가지 식료품들 가운데서 발효시켜 만드는 떡운콩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많이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여온 발효식품입니다.

이번호에는 훌륭한 기능성식료품인 떡운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옳바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분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콩은 영양가가 높아 《발고기》라고 불리워왔는데 떡운콩은 콩의 영양성분이 기본조성으로 되어있으므로 단백질, 기름질, 섬유질, 비타민 등의 조성이 리상적이고 영양가 또한 높은 식료품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여주며 중요한 에네르기원천으로 됩니다.

단백질함량을 소고기, 닭알과 비교하여보면 떡운콩 100g속에는 닭알 3알, 소고기 87g에 맞



먹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떡운콩은 몸을 덥히고 영양을 보충하는데 좋으며 비루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항균 및 살균, 뇌기능저하방지, 술취하기억제 그리고 당뇨병과 간기능장애, 암을 예방하고 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콩을 띄울 때 생기는 낫또균이 만드는 낫또키나제라는 효소가 강력한 혈전용해작용을 합니다.

떡운콩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옛날에 먼길을 떠나면서 벼짚으로 만든 중태기나 싹지같은 용기에 콩밥을 담았는데 우연히 밥속에 섞여있던 삶아진 콩알들이 지금의 떡운콩모양으로 된데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벼짚에 콩을 발효시키는 그 어떤것(낫또균)이 있다는것과 발효된 콩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것도 알게 되었던것입니다.

떡운콩은 낫또균이 콩겉면에서 증식하면서 만드는 효소에 의하여 콩의 단백질과 당질 등이 분해되어 감칠맛이 나는 아미노산과 떡운콩특유의 점질물질, 향기물질들이 생성되는 발효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있는 떡운콩만들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직접 동포여러분의 가정들에서 떡운콩을 만들어먹으면 공업적방법으로 만든 떡운콩의 맛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것을 직접 알 수 있게 될것입니다.

떡운콩 1kg을 만드는데 마른 콩 0.5kg이 듭니다.

먼저 잘 여물고 알이 작은 햇콩을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군 다음 껍질이 상하지 않게 시루에서 푹 쪄야 합니다.

시루에서 쪄낸 콩을 밀바닥이 넓은 용기안에 벼짚을 골고루 펴고 그우에 고루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벼짚우에 콩을 깔고 또 그우에 벼짚을 놓고 콩을 깔고... 이렇게 3번정도 한 다음 면보자기로 용기를 덮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온도가 37~40℃되는 곳에 3일정도 놓아둡니다.

3일후이면 떡운콩에서 사람에게 따라 불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있었다. 그들은 나지막한 고개를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형네 집은 이쪽 고개밑에 있었고 동생네 집은 저쪽 고개밑에 있었다. 집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와 같아서 서로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냈다.

어느해 가을이었다.

형과 동생은 논밭의 곡식을 들이서 거두어들인 다음 마당질을 하여 똑같이 나누었다. 그날 밤 형은 잠자리에 누워서 달빛이 흘러드는 들창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우리는 곡식을 똑같이 나누었지? 그게 옳은가? 아니야. 그 래선 안돼. 동생은 살림살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지. 그러니 이것저것 갖추어놓아야 할게 많을거야. 그러자면 량식이 우리보다 더 있어야 해.)

형은 깊은 밤에 동생네 고간에 벼 한섬을 슬그머니 날라다 놓았다.

동생도 그날밤 달빛이 흘러드는 들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곡식을 똑같이 나누었지? 그게 옳은가? 아니야. 그 래선 안돼. 형님과 형수는 나이도 많고 식구도 여럿이니 량식이 더 있어야 할거야.)

동생은 새벽녘에 형네 고간에다 벼 한섬을 몰래 날라다 놓았다.

그 이튿날 아침에 고간을 들여다본 형과 동생은 눈이 둥그 래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어제밤에 벼 한섬을 저내갔는데... 어째서 하나도 줄지 않았을까?》

형과 동생은 몇번이나 벼섬을 다시 세어보고나서도 자꾸만 고개를 기웃거렸다.

《거참, 이상한 일인데...》

그 이튿날 밤에도 형과 동생은 저마다 벼 한섬씩 지고 집을 나섰다.

형은 동생네 집을 향해 고개길로 올라갔다. 동생도 형네 집

을 향해 고개길로 올라갔다.

두둥실 솟아오른 보름달이 고개마루에 서있는 소나무가지우에 내려앉아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형과 동생은 달밝은 고개마루에서 그만에야 서로 마주치고말았다.

형이 벼섬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 누군가 했더니 너였구나. 이 밤중에...》

동생도 벼섬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형님이...》

형과 동생은 서로 붙들고 정다운 눈길로 마주보며 한참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름달만이 무슨 사연인지 다 알고있다는듯이 내려다보며 싱글벙글 웃어주었다.

이 일이 있던 후부터 형과 동생의 정은 더욱더 두터워졌다.

* * *

유모아

그 값이 그 값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남의 집 소를 훔쳐다가 아들을 시켜서 장에 내다 팔고오라고 했다. 아들이 장에 갔다가 그만 소를 잃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얼마를 받고 팔았니?》

아들: 《아버지가 애초에 사온 그 금새대로 팔았어요.》

아버지: 《?!》

* * *



패한 냄새를 느낄수 있습니다. 이때 콩알전체가 뽀얗게 되면서 손으로 집으면 점액물질이 실오리처럼 따라오는데 이것은 바로 콩이 잘 뜯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것을 그대로 먹을수도 있고 입맛에 따라 소금과 겨자 등으로 양념하여 먹을수도 있습니다.

떡운콩을 일정한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쉽게 변질되는 식품이기때문에 발효가 끝나면 소금을 약간 뿌리고 60℃정도에서 바싹 말린 다음 포장하여두면 오래 먹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삶을 원하는분들에게 가장 리상적인 식품인 떡운콩을 동포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늘 즐겨 잡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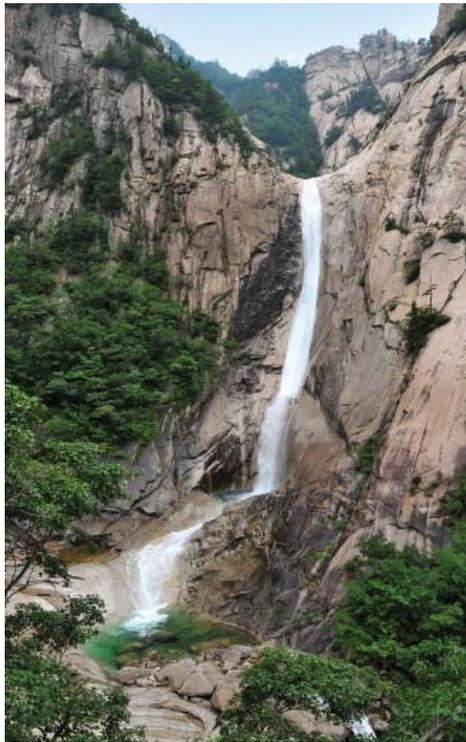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교원 정영철

조국의 천연기념물 (23)

강원도의 천연기념물들에는 구룡폭포, 삼선암, 천내고니, 외금강남생이, 세포조선소도 있습니다.

구룡폭포는 강원도 금강산의

구룡폭포



외금강에 있습니다.

구룡대의 깎아지른듯 한 바위벼랑에서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구룡폭포는 마치 흰 비단필을 드리운것 같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74m이며 너비는 4m입니다.

폭포밑에는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하여 13m의 깊이로 패인 큰 돌절구모

양의 구룡연이 있습니다. 구룡연에는 옛날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으며 이 전설에서 유래되어 구룡폭포, 구룡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중향포로 불리운 구룡폭포는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십이

삼선암



구들이라는 말은 원래 구운 돌이라는 뜻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왔다.

후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온돌이라는 표현과 뒤섞여 불리워졌다.

구들은 일반적으로 집들에서 밥을 지을 때 생기는 열을 리용하여 방을 덥히기 위해 열전도가 좋은 돌을 방바닥면에 깔고 그우에 일정한 정도의 두께로 흙매질한것을 말한다.

즉 부엌에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때는 아궁이 있고 불길과 열이 방쪽으로 넘어가도록 부넒이라는것을 설치하여 방(바닥-구들)을 덥히도록 한것을 말한다.

구들을 놓기 전에 방바닥에는 고래라는 열과 연기가 통

상식

조선구들

파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며 연기와 찬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래와 굴뚝사이(더 정확히는 굴뚝밑)에 개자리라는것을 만들어준다.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중강군 토성리,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리유적들에서 판돌을 돌상자무덤처럼 세워서 이어대고 그우에 판돌을 씌운 좁고 긴 형식의 고래구들이 발견되었다.

중국 당나라의 력사책 《진서》에는 B. C. 300년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구들을 널리 리용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고대로마의 열난방체계보다 200년가량 앞선것으로 된다.

* * *



천내고니

폭포, 비봉폭포, 옥영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폭포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삼선암은 강원도 금강산 만물상구역의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을 보면 오랜 기간 비바람에 씻기고 깎이여 묘하게 생긴 바위 3개가 나란히 솟아있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삼선암입니다. 바위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있습니다. 앞의 바위는 창끝같이 날카롭고 가운데바위는 줄 뭉툭하며 뒤의 바위는 둔하게 생겼습니다. 매 바위의 높이는 각각 30여m입니다.

삼선암의 바위썩에는 잣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 역세계 뿌리를 박고 자라고있어 아름다운 풍치를 더해주고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 경치가 하도 좋아 네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둑놀이를 하였는데 한 신선이 지루하여 놀이를 하는 세

외금강남생이



신선에게 방해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물리여 혼자 놀다가 독선암이 되었고 세 신선은 삼선암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하고 기묘한 삼선암은 지각운동과 지형의 발달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금강

산의 경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천내고니는 강원도 천태군 금성리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천내고니살이터가 있는데 그 살이터는 리소재지로부터 북동쪽으로 4km정도 떨어진 바다가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천내고니들은 10월 하순에 이 일대에서 살다가 물이 얼기 시작하면 바다로 날아가며 얼음이 풀리면 다시 날아와 살다가 4월에 북쪽 번식지로 날아갑니다.

외금강남생이는 강원도 고성군 구읍리에 있는 남생이살이터인 영랑호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영랑호에는 잉어, 붕어, 가

물치 등 민물고기와 개구리들이 많아 남생이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남생이들은 물가에 퍼져살면서 호수에 많은 물고기, 개구리들을 잡아먹으며 대량 번식하고 있습니다.

외금강남생이는 동부아시아의 특산종이므로 적극 보호되고있습니다.

세포조선소는 강원도 세포군 세포읍에서 북서쪽으로 40km정도 떨어진 신동리일대에 있습니다. 이 일대는 해발 560~800m인 산간지대이며 립진강지류인 고미탄천이 흐르고있습니다. 여기는 식물의 종구성이 다양할뿐 아니라 희귀한 식물들이 많아 소를 기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세포조선소의 몸질량은 수소가 평균 400kg(최고 500kg)이며 암소는 평균 350kg(최고 400kg)입니다. 소는 몸전체가 붉은 밤색을 띠며 주둥이와 턱밑, 목덜미가 거무스름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소품종의 하나인 세포조선소의 순종을 보호하고 그 마리수를 늘여나가고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세포조선소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3)

- 보현사의 4각9층탑 -

보현사의 4각9층탑은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 만세루앞에 세워진 돌탑으로서 1044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탑은 연한 회색의 화강석을 정교롭게 다듬어 만든 4각평면의 탑으로서 그 높이는 6m입니다. 탑의 맨밑에는 두 층의 바닥돌을 깔고 그우에 두 단의 밑단을 올려놓았으며 아래밑단 가운데돌에는 매면마다 같은 크기로 련꽃오모기를 3개씩 새겼습니다.



가운데돌밑에는 낮은 고임을 한단 두었고 갑돌 윗면에는 돌아가면서 련꽃잎을 새겼습니다. 윗밑단의 가운데돌 네면에는 각각 하나씩 커다란 련꽃오모기를 새겼습니다. 갑돌은 따로 윗면과 아래면을 가르고 면마다 세 겹으로 된 련꽃잎을 새겼습니다. 밑돌 한변의 길이는 3.55m이며 탑몸은 9층으로 되었는데 그가운데서 맨 마감층의 지붕돌만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탑몸돌은 위로 올라가면서 높리와 너비를 차례로 줄였습니다. 탑의 첫층 몸돌 남쪽면에는 높이 50cm, 너비 45cm, 길이 65cm의 네모난 불감이 있는데 그전에는 불감속에 다보부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층 몸돌의 북쪽면에는 탑을 세운 목적과 그년대를 알리는 글자가 새겨져있습니다. 매층 몸돌밑에는 띠모양의 2단고임을 주었으며 몸돌의 면들에는 모서리부분들에 홈을 파서 테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수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붕돌의 물매는 급한편이고 밑에는 3단의 처마받침이 있습니다. 처마선은 비교적 얇게 하면서 량끝을 살짝 들어주었는데 장중한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추녀끝에는 바람방울을 달았던 자리가 있고 탑머리에는 로반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보현사의 4각9층탑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한껏 엿보게 하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입니다.

본사기자

민족자주통일의 의지를 안으시고

오늘 삼천리강토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기운이 세차게 태동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극적인 사변은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민족자주통일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남관계는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치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실천적조치를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사절단이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한겨울의 맵쌀 추위를 가셔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화창한 봄기운이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게 하였다. 하여 악화일로를 걷던 북남관계는 마침내 화해와 단합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러한 속에 그이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웅대한 뜻을 안으시고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시여 온 민족과 전세계에 감격과 환희의 격파가 일어났게 하시였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이 안아온 특대사변이였다.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열망,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밝힌 판문점선언의 메아리는 삼천리강토를 진감시키였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불구름이 감돌던 조선반도에서, 더우기 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되어왔던 판문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련이어 4차, 5차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마련하시고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북남관계발전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추동하시였다.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은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추동하시려는 그이의 굳센 의지의 파시로서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되였다. 《반만년력사의 찬란한 도약이다.》, 《김정은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다.》... 그이를 우리러 터치는 이런 칭송의 목소리가 온 남녘땅에 울려 퍼지였다. 여러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을 힘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이의 숭고한 민족애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는 불과 몇달동안에 극적으로 전환되고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실현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이미 북남고위급회담과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협력분과회담, 도로협력분과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을 비롯한 부문별회담들이 진행되었으며 북남통일롱구경기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열리고 금강산에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등 북남관계개선분위기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정녕 력사적인 여러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력사를 열어놓으시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겨레는 반드시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상 식

약효능이 높은 음식물 몇가지

① 도마도를 먹으면 짧은 기간내에 혈압이 떨어진다.	황달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철 등 영양소들이 함유되어있다. 고구마는 몸안에서 나트륨을 배설하는 작용과 고지혈증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
② 참깨는 리놀산, 리놀렌산과 같은 천연불포화기름산을 많이 함유하고있으므로 동맥경화증에 특효가 있다.	⑤ 부류에는 비타민이 많은데 특히 비타민 E가 많은것으로 하여 피순환을 좋게 하고 빈혈을 막으며 간장과 콩팥을 보호한다.	⑧ 다시마는 피출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용해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있으므로 동맥경화증에 특효가 있다.
③ 팔을 삶은 물은 리노작용이 강하므로 하여 콩팥염에 좋다.	⑥ 김정콩은 몸안에서 물질대사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 * *
④ 가지는 간염으로 하여 생기는	⑦ 고구마에는 비타민, 칼시움,	

강패국가의 비렬한 망동

최근 일본이 비렬하고 무지막지한 강패국가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7월 일본세관당국은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총련학생들의 집을 살살이 뒤지다 못해 조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이 보내는 기념품과 운동복, 생활필수품까지 압수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총련산하의 조선유치원에 달려들어 건물을 마구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테로범죄까지 저지르는 망동을 부리었다.

이미 총련중앙회관에 총탄을 탄사하는것과 같은 테로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총련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범죄의 손길을 뻗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국책으로 장려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토하에서만 감행될수 있는 백주의 날강도질이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편견으로 가득찬 일본식 《법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 살풍경이 아닐수 없다.

이 전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는 지금 온 겨레의 민족적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비렬한 박해책동은 현시기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의 도도한 흐름에서 밀려나 외토리신세가 되어 속이 뒤뜰린 일본반동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세의 발로로서 재일동포들의 인권은 물론 인도주의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 야만행위, 반인륜적악행이다.

공화국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변들이 펼쳐질 때마다 악에 받쳐 날뛰면서 총련을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의 첫째가는 과녁으로 삼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체질적악습이다.

그로 하여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게 가한 폭압과 협박, 테로행위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재일조선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의 동심마저 란도질하는 비렬한 망동은 일찌기 없었다.

사회적보호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나 어린 학생들과 철부지 어린이들이 테로와 협박의 주요 목표로 되고있는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서도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쯤스럽고 비렬한 족속들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현시기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미관계에서도 화해와 긴장완화의 공기가 흐르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첨예한 긴장상태를 구실로 《북조선위협론》을 상투적인 수법으로 떠들며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야망을 달성해보려던 일본이 더이상 저들의 흉심을 실현할수 없게 하였다. 이에 부야통이 터져 발광하다 못해 총련과 재일조선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광기적인

탄압으로 분풀이를 하는 일본반동들이었다.

삼나라강패들의 그 못돼먹은 속통은 어디 갈데 없다.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로 보나 총련의 합법적인 지위로 보나 일본은 마땅히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대해야 할 법적, 인도주의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정치적탄압과 박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세인을 격분시키고있다.

이로써 저들의 범죄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와 인륜도 서슴없이 짓밟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권유린국인 일본의 진면모가 다시금 낱알이 드러났다.

가관은 이런 일본이 찍하면 그 누구의 《인권》문제라는것을 내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으며 모함하려고 발광하는것이다.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지금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에 접한 조국인민들은 민족의 천년속적인 삼나라강패들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일본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거듭되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조선의 관광

단군릉



조선의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시조왕무덤인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의 야산마루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83(1994)년 10월 기념비적창조물로 개건확장된 단군릉은 넓은 부지에 개건기념비구역, 석인상구역, 무덤구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개건기념비구역에는 룡의 문기둥, 단군릉개건기념비, 단군릉기적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석인상구역에는 단군의 아들들과 측근신하들을 형상한 조각상들이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배치되어있습니다.

무덤구역에 있는 왕릉은 정4각추형의 계단식 돌무덤으로 되어있습니다. 룡의 앞면에는 2개의 망주석과 상돌, 돌향로 등이 있습니다. 룡의 네 모서리에는 조선법을 형상한 4마리의 돌범이 세워져있습니다. 무덤구역의 제일 바깥 네 모서리에는 고조선시기의 전형적인 무기였던 비파형단검을 형상한 검탑이 세워져있습니다.

무덤칸에는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이 안치되어있습니다.



무덤칸에는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이 안치되어있다.



단군릉을 찾은 해외동포들

해마다 이곳에서는 개천절행사가 진행되고있으며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 *



금강산 세존봉의 겨울 본사기자 공유일

금강산은 여름에도 절경이지만 겨울의 경치 또한 이채롭다.
산에도 나무우에도 하얀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우렷이 보이는
세존봉의 웅장한 자태는 금강산의 경치를 한껏 더해준다.

